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예수의 식탁에 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장정이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Chengyi Cha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JESUS' TABLE AS AN EXTENSION OF THE EUCHARIST

Chengyi Chang

Jeonjutaipyung Church, Jeonju, Korea

The basic structure of worship consists of the Word and Eucharist. However, the Korean church' s excessive focus on the Word has led to the decline of the Eucharist, resulting in an imbalance in worship. As worship the center of the Christian life loses its balance, the daily lives of Christians, too, lose their center and become unsettled. Externally, the church is criticized as a group that prioritizes words over deeds, while internally, this issue has become apparent as it faces an era of two million ″Canaans.″

In this serious situation, the best measure the church can take is to restore the balance in worship that has tilted too far toward the Word. Accordingly, this study asserts that Eucharist should not be regarded merely as an event held a few times a year, but rather as a ritual that forms balanced worship. Furthermore, it seeks ways to extend and invigorate Eucharist beyond the confines of the church into everyday life through the table of Jesus.

To expand Eucharist, firs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its altar like character that of commemorates Jesus' death and to transform it into a table that remembers, beyond death, the resurrection. Second,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underlying the table of Eucharist must be on expanded. Instead of being confined to the church building, community should be formed in the sense of the family defined by Jesus. Third, not only within the church but also extending into the world, the table of Eucharist should be realized as the tale of Jesus. Just as Jesus' life is made visible at the table of Eucharist, the life of the church and its Christians should be embodied as witnesses of Jesus through His table.

To this end, we must reexamine the table at which Jesus dined with many people during His public ministry and recreate it in our daily lives. Since Jesus instituted table of Eucharist and opened the way to the preeminence of God's kingdom, the method to elevate Christians into beings who worship in balance and act accordingly can only be found through the expanded table of Eucharist.

국문초록

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예수의 식탁에 대한 연구

장 정 이

전주태평교회, 전주, 대한민국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는 말씀과 성만찬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말씀에 치중한 나머지 성만찬의 쇠퇴를 가져왔고 예배는 균형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가 균형을 잃자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역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예배와 삶의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말만 앞세우며 행동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평가로, 내부적으로는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를 맞닥뜨리며 표면화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말씀에 치우쳐 기울어진 예배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에서 성만찬이 일 년에 몇 번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균형 잡힌 예배를 형성하는 의례로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고착된 성만찬이 아니라 일상으로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예수의 식탁을 통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성만찬의 확장을 위해서는 첫째 성만찬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단의 성격에서 탈피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기념하는 식탁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성만찬 식탁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국한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예수가 정의한 가족의 의미로 공동

체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로 성만찬 식탁이 교회 안에서뿐 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확장되어 예수의 식탁으로 실현되고, 예수의 삶이 성만찬 식탁에서 가시화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식탁을 재 조명하고 우리 일상에서 재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길을 열어 주셨고,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격상하는 방법은 성만찬의 확장된 식탁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6

II. **성만찬의 확장** 12

A. 기념하며 기억하는 공동체의 식탁 19

B. 사명 받고 실천하는 식탁 27

C.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의 식탁 31

III. **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예수의 식탁** 35

A. 기념하며 기억하는 예수의 식탁 36

1.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식탁 36

2. 빈 들에 차려진 예수의 식탁 40

3. 부활이 일상이 되는 예수의 식탁 43

B. 사명 받고 실천하는 예수의 식탁 48

1. 마태의 식탁 48

2. 마르다의 식탁 52

3. 고넬료의 식탁 57

C. 세상으로 나가는 예수의 식탁 61

1. 디베랴 호숫가의 예수의 식탁 61

2.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한 에덴동산의 식탁 64

3. 고린도 교회의 소망의 식탁 69

IV. **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일상의 식탁** 74

A. 돌아온 딸을 위한 어머니의 식탁 74

B. 움직이는 식탁 80

C. 리미널리티(liminality) 공간의 식탁 87

V. **결론** 101

참고문헌 105

감사의 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되는 날들이 있었지만, 레너드 스윗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된다.’ 라고 하신 조병호 교수의 말씀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며 모든 것 주께 맡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때 지침을 정해주시고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신 김영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인정해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내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근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존중하며 기도해 준 남편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하게 암을 이기고 일상을 살고 있는 사촌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묵묵히 함께 해준 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며 공부하고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김은례 선교사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공유하고 하루하루 이야기를 엮어가며 쌓아갈 수 있도록 동역해 준 김지혜 목사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박사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이해해 준 김진영님에게 감사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준 박하나 전도사에게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사할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으며 주님이 살아 계심을 여실히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 년 2 월

장정이

Ⅰ. 서론

A. 연구 목적

우리 식탁에 예수의 이름이 빠진다면 식사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일 뿐이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식탁이 의미를 잃으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셨고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으로 배고픈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이에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1] 하셨다. 예수께서는 인생이 먹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음을 단언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식탁은 먹고 살기 위한 것 외에 다른 가치가 있음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2] 식탁의 상징성은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식탁을 삶의 한가운데에 놓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표현이기 때문이다.

---

[1] 마태복음 4:4

[2] 본 논문에서 식탁은 단어의 뜻인 먹기 위해 음식을 놓는 상의 의미도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전 10:31)는 말씀에 근거해서 삶에서 차려지는 모든 식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라는 뜻을 가진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배 공동체는 말씀으로 선포된 예수를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 식탁에서 가시화하고 그 의미를 확정했다.[3]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음식으로 자신을 내주신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요즘 성만찬 식탁은 교회 한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말씀 위주로 치우친 예배는 균형을 잃었다. 교회의 근간인 예배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자 교인들의 중심도 흔들리고 있다. 말씀으로만 비대해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교회 안팎의 한탄과 조소 섞인 목소리까지 드높아진 상황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앞세우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예배의 갱신을 이뤄야 한다는 발언이 다시 제기된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오랫동안 주장되어진 논거가 변함없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상적인 예배 형식으로 초대교회 예배를 추앙하고, 성만찬이 배제된 말씀 위주의 예배를 지적하며, 성만찬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이다.[4]

이러한 의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작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예배가 말씀과 성만찬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만

---

[3]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징"이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영적인 것을 가시화한 성만찬 식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예수의 형상이 충분히 경험되어야 한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482-485.

[4]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 [2025. 1. 17. 최종접속]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 예배의 실제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성만찬에 대한 주장과 연구가 무모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예배의 균형을 위한 몸부림과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만찬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미진하고 더디더라도 변화를 소망해야 한다. 더불어 누군가는 성만찬 예배를 활성화할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해야 한다.

연구자 또한 방치되어 형식만 남은 성만찬을 예배 안에서 정착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에 성만찬 식탁을 교회에서뿐 만 아니라 일상으로 확장해서 예수의 식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본 논문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예수의 사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과 먹고 마신 식탁이다. 사람들이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수의 식탁은 예수가 계시는 어디서나 빠지지 않았다.[5]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식탁에서 모여 먹기를 원하셨다. 예수는 이 식탁에서 자신의 죽음 뒤에 제자들의 삶이 예수를 기념하는 사명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유언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와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사명을 잊었다. 죽은 예수를 애도하는 과정에 침몰되어 버렸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낙망한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상식을

---

[5] **마태복음** 11:19

초월한 부활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자들이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차려 주신 식탁에서 예수가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비로소 부활의 실체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다. 동시에 지금까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명을 찾을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성만찬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고 해도 실존적인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제자들처럼 예수를 애도하는 과정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삭제된 식탁에서 예수가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성만찬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단의 제사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은 성만찬 식탁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다.

J. 막 힉스는 "교회가 성만찬을 죽음의 제단으로 고착해서 부활의 기쁨을 잃게 하고 금요일 밤의 마지막 식사에 멈춰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성만찬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식탁이 되어야 한다"[6] 고 주장한다.

예수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바친 화목제물로 한정하고 화목제단의 제사로 그쳐버린 성만찬을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사명을 받아 사는 증인의 식탁으로 확장해야 한다.

확장된 성만찬 식탁은 공생애 동안 예수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식탁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 자신을 식탁의 음식으로 기꺼이 들어 떼어 나눠 주셨던 성만찬 식탁은 세상 어디서나 만난 누구라도 함께

---

[6] J. 막 힉스, 『주의 식탁으로 초대』 정남수 역 (서울: 그리스도대학교출판국, 2004), 96.

식사하시는 예수의 식탁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온전해진다.

식탁이 삶이 되어 율법의 굴레에서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의 것을 먹이며 치유하시고 배부르게 해 주셨다.

연구자는 예수가 함께 하셨던 식사의 자리들을 예수의 식탁이라 명명하며 성만찬의 확장된 모습으로 해석할 것이다.

예수의 식탁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예수의 식탁은 성전 안이나 가정이나 식당 등의 정형화된 곳에 차려진 식탁이 아니다. 예수가 계신 곳 어디나 누구도 가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움직여 다니며 차려진 식탁이다.

예수의 일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교회는 일상에서 예수의 식탁을 재현하며 실천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예수가 말씀하신 가족의 개념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본 논문은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만찬이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라는 논증을 하고, 교회가 성만찬 식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 공동체에 기반한 성만찬의 확장을 논하므로, 공동체 또한 예수가 정의하신 예수 가족[7]을 공동체의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것이다.

실천 방안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성만찬 식탁의 확장을 구체화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

[7] 예수께서는 혈육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누구나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며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 하셨다. (마 3:35)

B.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성경(개역개정)을 기반으로 여러 학자들의 서적과 연구 논문, 간행물과 연구자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성만찬이 예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논증하고 주장하는 논문이기는 하지만 성만찬에 대한 원론적인 연구 논문이 아니므로 성만찬의 이론이나 역사 등을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텍스트는 성경이고 성경을 스토리텔링[8] 형식으로 구성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9]

Ⅱ장에서는 성만찬의 확장의 의미를 고찰해서 성만찬 식탁의 활성화를 제안할 것이다. 성만찬의 확장은 당연히 공동체의 확장을 가져올 것인데 공동체가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 예수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장할 것이다.

성만찬의 확장된 식탁은 예수가 사명으로 주신 '예수를 기념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식탁이다. 이를 위해 성만찬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만찬을 살펴보고 성만찬이 제단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식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을 증거할 것이다.

---

[8]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 연결하려고 할 때 도구로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사용한다" 허버트 엔더슨, 에드워드 폴리, 『예배와 목회상담 힘있는 이야기, 위험한 의례』 안석모 역 (서울: 학지사, 2012), 15.

[9] 김영래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야 성경의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현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연결하고 살아가면서 구연하는 것을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소통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청자로서 의미의 공유를 위해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을 공동체와 구별하지 않고 개인의 공유된 경험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실현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개인의 삶을 이룬다.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91 (2017), 160-166.

성만찬이 확장된 예수의 식탁은 예수를 기념하는 사명을 받는 식탁이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식탁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정체될 뻔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식탁에서 먹이시며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이는 성만찬 식탁이 확장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만찬 식탁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서 정체된다면 성만찬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 외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교인들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인생길에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차려 주시며 먹이신 예수의 식탁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의 것을 먹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제자로 살아갔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의 식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고난 가운데 있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예수를 의심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성만찬 식탁에서 공동체의 한 개체로 참여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죽음 너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아 예수의 식탁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본 논문은 부활의 증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식탁을 확장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Ⅲ장은 성만찬을 식탁으로 확장하면서 다시 살펴보고 해석한 예수의 식탁을 제시한다. 성만찬 식탁을 기념하는 공동체는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식탁을 펼침으로 확증한다. 성경에서 예수가 함께 하셨던 식탁을 재 해석하며 연구자가 경험한 식탁들을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기념하는 공동체의 식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식탁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 식탁이다. 예수께서는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하시는데 당신을 배신한 유다까지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신다. 이 식탁에서 사명으로 주신 기념의 의미와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열어 놓으신 예수의 식탁을 기반으로 예수의 가족이 열어 가는 식탁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빈 들에 차려진 오병이어의 식탁에서 공동체의 확장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된다. 확장된 공동체를 대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상반된 태도를 살펴보고, 현실 교회가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엠마오의 제자 둘과의 식탁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진격해 들어오시는 현장이 펼쳐진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현장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의 것을 먹고 마셔야만 부활이 일상으로 들어와 부활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가 먼저 알려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예수의 식탁은 여러 사람의 집에서 사명을 받고 실천하는 식탁으로도 나타난다. 먼저 마태의 집에서 펼쳐진 마태의 식탁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가 당신을 식탁에서 음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공고히 하셨던 것처럼,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잔치를 통해 마태를 동네 한가운데 세우시고 예수의 제자로 공표하신다. 이를 통해 성만찬의 식탁이 세상에서 사명자를 세우는 식탁으로 확장된 것을 볼 것이다.

두 번 째로는 성경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초대한 마르다의 식탁을

소개한다. 마르다의 식탁을 통해 사명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사명 받았으나 사명을 잃은 사람과 반대로 사명자의 위치를 굳게 다지는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교해 볼 것이다.

예수의 식탁은 경계가 없다. 만약에 예수 앞에 경계가 생겨 막힌다면 그 경계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무너뜨려지고 그 자리에 식탁이 펼쳐진다. 고넬료의 식탁은 이방인의 경계를 넘고 넘어 유대인 베드로를 초대하며 나타난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 같은 이 식탁은 실상 예수가 베드로와 고넬료를 초대한 식탁임을 알 수 있다.

기념하고 사명을 받으며 예수의 식탁에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땅에 초대받아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성만찬 식탁이 죽음을 넘어 승리하는 부활의 식탁임을 증거하며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식탁을 재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디베랴 해변에 차려진 예수의 식탁은 사명을 받았으나 환경으로 인해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린 제자들을 예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다. 찾아가셔서 열어 주시는 예수의 식탁이 있음을 확인시키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부활을 경험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식탁을 재현하며 초대교회의 식탁을 만들어간다. 초대교회의 식탁은 예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었으며 서로에게는 평등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식탁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에덴동산의 식탁을 초대교회가 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식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한다.

식탁은 움직이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거나 확장해 가는 식탁은 언제라도 상처받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교회의 식탁을 들여다볼 것이다. 반면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할 지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안도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식탁을 통해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

Ⅳ장은 성만찬 식탁의 확장이 일상에서 실현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연구자의 사례를 통해 논할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도입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적용할 것이다.

첫 번 째는 연구자가 받고 누리며 사명을 굳건히 했던 어머니의 식탁을 제시한다. “돌아온 탕자”[10] 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논술할 것이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식탁을 내 어머니의 식탁에 기대어 보고, 어머니의 식탁을 통해 연구자가 받은 식탁의 사명을 소개할 것이다.

두 번 째는 식탁을 받아 누린 사람의 다음 행보를 볼 것이다. 식탁을 받아 기쁨과 안정을 누린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피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식탁에서 받은 사명을

---

[10] **누가복음 15:11-32**

완수해 가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인 것처럼, 이 주제를 자각하면서 연구자가 실천한 식탁을 논술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에게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호한 공간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장례식장 만이 아니라 장례를 집행하는 유족도 세상과 장례식장 사이에서 입장과 신분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족들에게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장례식장에서 모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들어오도록 강요하는 것 같다.

장례식은 끝났으나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세상과 장례식장의 어중간한 곳에 어설프게 서 있을 수도 있는 자들에게 애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연구자는 애도가 장례식과 함께 끝낼 수 없는 문제이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애도 과정에 있는 유족이 세상으로 건강하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장례 예식 안에 애도 예식을 조성해 넣을 것과 공동체를 위한 성만찬 식탁을 제시할 것이다.

Ⅱ. 성만찬의 확장

성만찬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던 유월절 식탁에서 시작됐다.[11]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탁은 전통적으로 지켜 온 의례였고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던 여호와의 밤[12]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날을 기념"[13] 하며 기억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더라도 자신들의 근간을 이루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는 유월절 식탁에 모여들었다. 어린양을 잡아 제단에 바치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노예였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14]

예수께서도 유월절이 다가오자 여느 유대 가족들처럼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

[11] 누가복음 22:15

[12]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다. 애굽 왕은 9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달 열나흗 날 밤에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사람에서 가축에 이르기까지)의 죽음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 장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여호와의 밤의 선포이다.(출 12:1-13)

[13] 출애굽기 12:14

[14] 요한복음 11:55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을 준비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마주한 식탁은 예수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는 예수가 주인이신 식탁이었다.

>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15]

동물의 피의 제사로 구원받았던 제단의 자리에[16]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17] 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식탁이 펼쳐진 것이다.

예수께서는 머지않아 닥칠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빵과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며 실행하셨다. 앞으로도 식탁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를 기념하는 사명을 완수하며 새 언약을 지키고 살 것을 명령하셨다.

시대를 따라 성만찬(Eucharist)식탁은 여러 가지 형식과 모양으로 변천을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그 뿌리만큼은 예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The last supper)에 근거하고 있다.

성만찬 식탁에서 예수의 4가지 행동(취하고, 감사 기도, 쪼갬, 나눔)을 원형적인 성만찬(The Primitive Eucharist)이라고 주장하는 그레고리 딕스도 마지막 만찬(The last supper)에서 성만찬의 근원을 찾으며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례로

---

[15] **누가복음 22:19-20**

[16] **출애굽기 24:4-8 옛 언약**

[17] **마태복음 26:28**

정의한다.[18]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로 마지막 만찬(The last supper)이라고 불린다. 안타까운 것은 성례인 성만찬이 예전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화목 제단의 성격이 짙게 밴 의례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성만찬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를 기념하고 하신 사명을 교회가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는 성만찬을 일 년에 몇 번 특별하고 부수적인 행사인 것처럼 치러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예배에 대한 각성으로 성만찬의 활성화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만찬을 하고, 교회력에 맞춰서 행하기도 하면서 성만찬의 횟수를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매주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만찬을 균형 있게 행하는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19]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만찬에 대한 고찰과 노력은 끊임없으나 그에 비해 성만찬 식탁은 교회 안에서 죽음의 제단으로 정체되어 있고 행사화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만찬이 예배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횟수를

---

[18] Dom Gregory Dix,「The Shape of the Liturgy」(London, New York: Contium, 2005, First Published January 1945), 78. 82.

[19] 성만찬을 행하는 횟수는 1년에 2회(53%)로 가장 많고 주 1회 비율은 1%, 월 1회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설교를 통한 성만찬 교육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22%) 성만찬이 예수를 기념하는 식이라는 인식도 없이 성만찬은 개인 영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7 [2025.1.8. 최종접속]

조절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성만찬의 정체의 원인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으로 고착되어 버린 의례의 지루함에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력에 맞춰서 성만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빵과 잔과 제정사는 획일적이고,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둡고 무거운 음악과 분위기가 성만찬 예배를 이룬다. 부활절의 성만찬도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거행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도 변함없이 성만찬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관철되어 있는 성만찬을 거행한다. 말씀을 가시화한 의례가 성만찬일 진데 말씀과 성만찬이 전혀 맞지 않는 별개의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자는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한계에 왔음을 절감하고 성만찬의 확장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성만찬은 화목 제단의 제사가 아니라 식탁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인간의 죄의 속량을 위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20] 그러나 예수가 화목제물이 된 십자가는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화목 제사와는 완전히 다르다.[21] 예수는 동물 제물처럼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단의 제물이 아니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22] 그러므로 성만찬을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단의 제사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J. 막 힉스는 성만찬은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함께 먹는 식탁의 개념으로

---

[20] **로마서 3:25**

[21] **출애굽기 3:1-2**

[22] **히브리서 9:12**

해석되어야지 제단의 개념은 아니라고 했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The last supper)은 예수가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만난 식사 중에서 마지막 식사일 뿐이고, 이 식탁으로 인해 예수가 함께 하셨던 많은 식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식탁.[23] 이라고 한다.

성만찬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일 뿐이라는 막 힉스의 주장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의 식탁을 약화시키는 것 같아 아쉽지만, 성만찬을 제단처럼 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죽음은 죽여지고 태워져서 향기만 남아 없어지는 제물의 죽음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었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투키는 성만찬을 예수의 마지막 식사에만 집중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죽음만을 부각한다면 부활 예수가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이다.[24]

안선희는 예수의 성만찬의 뿌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의 만찬에 있으며, 재림 예수를 기대하며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선취하는 것이라고 밝힌다.[25]

로완 윌리암스 또한 “부활이 빠진 성만찬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기억하며 기념

---

[23] 힉스, 『주의 식탁으로 초대』, 58.

[24] 로렌스홀스투키,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8.

[25] 안선희, 『예배 돋보기』 (서울: 바이북스, 2011), 52.

식탁일 뿐이다”[26] 라고 한다.

정리하면 예수의 죽음은 부활의 통로이다. 성만찬은 제단이 아니라 식탁의 개념으로 부활을 밝히 말해줘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구원의 주님이 성만찬 식탁에서 드러나야 한다.

성만찬을 식탁의 개념으로 예배하는 증거들은 1, 2세기 교회에서 그 예를 찾는 것이 현재 교회들의 예배 실황에서 찾는 것보다 쉽다.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떡을 뗄 수 있는 식탁에서 모였다. 빌린 방이든 개인 집이든 모이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고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식탁만 있다면 어디서나 언제라도 모였고 예배했다.[27]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진 식탁에서 왕성하게 모여 예배하고 식사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식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찾아간 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28] 이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흩어졌다.[29] 식탁은 말씀을 수반했고 성만찬이 확장되고 활성화된 예배의 공간이었다.

말씀으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었고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 안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흩어졌다.

초기 문서인 약 2세기 초반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집으로 알려진 “디다케(The Didache)”에서 “먼저 잔을 들고 예수를 통해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들어 쪼개져

---

[26] 로완 윌리암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김기철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22), 78.
[27] 에드워드 폴리,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최승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32.
[28] 사도행전 20:7
[29] 사도행전 20:11

뿌려졌으나 다시 하나로 연합된 것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들이기를 기원하며 예수를 통해 감사를 한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신 후 예수를 통해 계시하신 지혜와 믿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 감사한다.”[30]

“디다케(The Didache)”에는 마지막 만찬(The last supper)과 같은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고 빵을 들어 교회의 연합을 기원하고 예수를 통한 감사를 하고 배불리 먹는 식사로 마무리한다. 예수 가족이 식탁 공동체로 모였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빵처럼 떼어져 흩어져 살다가 연합하며 다시 식탁에 모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식탁의 식사만으로도 성만찬을 충분히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진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마지막 만찬과는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모였으며 성만찬 식탁을 나눴음을 알 수 있다.[31]

확장된 성만찬 식탁은 의미와 형식에서도 많은 효과를 낸다. 식탁만 있다면 모이고 예배하고, 흩어지지만 다시 연합하는 공동체가 식탁을 실천한다.

교회로만 끌어들이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빵처럼 흩어져 교회를 떠나 표류하는 자들에게도 다가가 예수를 식탁의 음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확장된 공동체를 생각하게 한다.

형식 면에서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죽음만을 기념하는 제단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으로 성만찬 식탁을 누릴 수 있다. 성탄절에는 성탄의 기쁨을 성만찬

---

[30] 요셉 봐이스마이어, 빌헬름 게이를링스, 기스베르트 그레사케,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전헌호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2), 38-39.

[31] 이어진,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연구-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식사로,” 『신학과 실천』 46 (2015), 89.

식탁을 통해 예수의 탄생을 가시화하며 말씀과 식탁이 어우러져 갈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만찬을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단의 형식으로 국한하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식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제 교회의 결단과 행동만 남았다. 이미 예배서들은 현장 교회보다 빠르게 성만찬 식탁을 확장해 놓았다.

한국장로교출판사가 번역한 미국장로교의 "공동예배서"의 성만찬 식을 보면 성찬대를 "주님의 식탁"으로 명명하고 "기쁨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한다" 고 기도한다.[32]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희년예배서"의 성만찬 식에서도 성찬대를 "이 식탁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잔칫상" 이라고 하면서 제정과 기념사에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고 선포한다.[33]

성만찬의 확장은 공동체의 확장과 더불어 이루어야 한다. 성만찬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은 성만찬의 확장과 함께 공동체의 확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A. 기념하며 기억하는 공동체의 식탁

예수께서 성만찬를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나를 기념하라"[34]의

---

[32] 한국장로교출판사, 『공동예배서』 김소영, 김세광, 안창섭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92. 96.

[3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희년예배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4), 126. 128.

[34] 누가복음 22:19

“기념” 은 사전적 풀이[35]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지 잊지 않기 위한 단순한 장치로써 기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병호는 예수의 성만찬 식탁에서의 기념은 과거에 중요했던 사건의 실체를 의미화해서 현재를 살고 그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36]

안선희는 기념을 히브리 개념인 ‘아남네시스(anamnesis)’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현해서 현재의 사건처럼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37]

정리하면 과거의 사건을 의미화해서 재현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기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에드워드 폴리는 전에도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살아 계심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기념이라고[38] 한다.

성만찬 식탁에서 예수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탁의 음식으로 거침없이 자신을 주시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획과 실천이 그때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삶의 식탁은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라는 원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성만찬 식탁으로 인해 이러한 인간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

[35]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https://namu.wiki/ [2025. 1. 20. 최종접속]

[36] 조병호, 『예수님의 성찬식 선언 3가지 - 관유에서 보혈로』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4), 124.

[37] 안선희, 『예배 돋보기』, 60.

[38] 폴리,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61.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말해준다. 성만찬 식탁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39] 영생을 약속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선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만찬을 통해 가시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떡을 떼는 사람들”[40]이 식탁에 모여 공동의 기억을 쌓아간다. 이 기억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을 초월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떡을 떼고 기념하는 식탁을 형성해서 삶의 중심을 이루고 살아간다.[41]

식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공동체는 예수의 새로운 언약에 기반을 두고 이웃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복음의 핵심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됐던 옛 언약[42]이 폐기된 자리에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어 들어와서 이웃은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단지 길에서 동행했던 나그네의 자격으로 예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두워진 길에 나그네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집으로 들이고 식탁을 베풀었다. 그랬더니 그 식탁에 앉은 이가 부활의 주님이셨다.[43] 외부인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화해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새 언약의 식탁이 펼쳐진다.

새 언약의 식탁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

[39] 요한복음 6:54.

[40] 사도행전 2:46

[41] 댄 E. 샐리어스, 『예배와 영성』 이필은 역 (서울: 은성, 2002), 93.

[4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 7:6)

[43] 폴리,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63.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44] 예수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가족의 의미를 확장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펼쳐진다.

레너드 스윗은 예수의 가족이란 식탁을 차려서 예수를 기념하는 사람들이며, 예수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룩한 잔치가 예수 가족의 식탁이라고 한다.[45]

그러므로 예수의 가족은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식탁의 주인은 예수이시며 우리는 식탁에 초대받은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식탁의 주인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성된 식탁 공동체는 예수를 기념하는 식탁을 재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일을 반복하며 미래를 삼아야 한다.

연구자는 10년 넘게 청년부 사역을 해 왔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청년들(2024년 현재 2030세대로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청년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학원 교육을 섭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근접한 세대로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라온 사람들이다. 대학 재학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시로 시험을 보면서 이력을 갖추고 취업을 준비한다. 직장인인 청년들도 요즘 직장인의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직장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꾸준히 이직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적인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유튜버들의 여행을 보면서 여행하는

---

[44] 마태복음 12:50

[45]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5), 29.

즐거움을 만끽하고 먹는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의하기도 하지만 냉소적인 판단도 서슴지 않는다.

연구자가 볼 때에는 현실과 가상 현실 사이에서 갈등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청년들이 현실과 가상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때가 있다고 한다. 그 혼란의 시기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벽에 부딪칠 때라고 한다.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고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나름대로 삶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답게 그들에게 혼란을 준 곳에서 다시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신속하게 정체성을 찾고 혼란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한가지 예가 성격유형검사(MBTI)이다. 온 세상이 성격유형검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중화된 성격검사들을 청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타인과의 만남도 성격유형을 먼저 묻고 예측하면서 시작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상담, 타로, 명상, 요가 등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이 없다.

기독 청년들 답게 세상의 신을 의지해서 풀어내는 방법을 피하려는 노력이 가상할 정도이다. 건전하게 자리 잡은 성격유형검사는 청년부의 모든 행사에서 필수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격유형검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성격유형검사를 여러 번 해서 자신의 성격을 알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유형검사는 세분화되어 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더욱더 전문적인 검사로 자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미흡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장치들을 검색하고 별로 색다르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검사들을 가져오고 실행하고 있는 행태를 목격했다.

그러던 중에 청년부 여름수련회의 시기가 다가왔다. 연구자는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수련회를 제안했다.

수련회에 프로그램을 넣지 말고 종이 성경책으로만 읽는 '성경 읽기'와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1박 2일 수련회를 해 보는 것이다.

평소에 종이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번 수련회는 종이 성경책을 읽어 보자는 제안이었다. 성경은 잠언을 선택했고 참가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읽고 식탁을 공유하며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오지 못한 청년들을 초대하고 식사를 하면서 끝내는 일정이다.

직장인과 휴학생(군대), 대학 3,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청년부이고 대부분 교육부의 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서 교육부 수련회를 마친 후였다. 홀가분하게 청년들만의 모임이 필요했다. 서로 시간을 맞춰 '부담 없이 청년부 공동체 식탁에 모여 성경을 읽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자' 라는 취지로 청년부 자체 수련회를 개최했다.

비록 배달 음식으로 식탁을 채웠지만 메뉴 선택에 모두의 의견이 들어갔고 임원들은 음식이며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다. 기존의 수련회가 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준비하는 책임을 다했던 그동안의 수련회와는 차별화된

수련회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고 말하면서 임원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좌불안석이기도 했지만, 서서히 말씀과 함께 식탁을 누렸다.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해 늦게 참여한 청년들도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수련회여서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었다. 모두가 맛있는 식탁을 공유했다. 다음 날에는 수련회에 전혀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식탁에 초대하고 수련회 피드백(feedback)을 나누었다.

청년들은 처음에는 성경책으로 성경만 읽는 수련회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가 ‘가장 진지했던 수련회였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는 평가를 했다.

사실 수련회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광야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자는 평화롭고 느긋한 성경 읽기를 제안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매체로 바쁘게 찾아다닌 청년들에게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광야의 식탁으로 안내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기 위해 광야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46] 청년들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정체성은 나를 찾으러 들어온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찾은 정체성은 광야를 떠나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잊혀지고 혼란을 거듭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때 성만찬 식탁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속하고 빠르고 즉각적인 정체성 찾기는 당장은 궁금했던 정체성에 답을 주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또 다른 목마름이 되기도 한다. 더더 보이고 멈춰 있는

---

[46]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66.

것 같은 식탁에서 예수를 기념하며 기억하고 예수께 초대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정체성의 갈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 가서는 성만찬의 확장된 예수의 식탁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웃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면서 사는 것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유기적 순환이 교회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래야만 교회의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안정감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만찬 식탁을 교회 안에서 일 년에 몇 번 차려지는 행사로 그 의미를 잃게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선취하며 이 땅에서 확장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성만찬 식탁의 “기념”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며 예수를 기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의 마지막 식탁에서의 주님을 기념한 사건이 예수의 가족들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념하며 식탁을 차리는 오늘의 이야기이다.

성만찬 식탁은 예수의 초대를 받아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미리 맛보고 반복해서 계속하며 확장하며 식탁 공동체를 형성한다. 형성된 식탁 공동체는 예수에게 초대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B. 사명 받고 실천하는 식탁

예수께서 초대하신 식탁 모임은 예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공동체는 다수가 될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다. 외롭게 혼자서 식탁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주인 삼아 예수와의 관계에서 떡을 떼고 있다면 예수의 가족 공동체로써 예수의 식탁에 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숫자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의 관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초대하셔서 떡을 떼어 주시는 식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셨던 에덴동산의 식탁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동산은 배고픔이 없는 곳이었다. 맘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완성된 식탁이었다.

하나님의 식탁은 동산의 사람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금하신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깊은 간격이 벌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어 동물의 피를 뿌리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 궁리를 했지만, 죄의 굴레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식탁을 피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 식탁을 차리셨다. 레너드 스윗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입문 단계로 식탁을 사용했다.”[47] 고 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48] 당신을 음식처럼 식탁에 차려 놓으시면서 우리를 예수와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49]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의 길을 내주셨다.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예수가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해 주셨다.

예수의 식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50] 로 불리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지상의 마지막 식사에서도 3년 동안 제자였으나 그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의 식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작별할 제자들에게 예수가 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를 기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사명이 제자들의 길이 되고 사명을 완수해 가며 살기를 원하셨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바울의 행동을 보면 사명의 완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

[47] Ibid.,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76.
[48] 요한복음 6:56.
[49] 요한복음 14:11
[50] 마태복음 11:19

잘 보여준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식탁의 분열로 인해 성만찬이 식탁의 의미를 잃고 변질되어 버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택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소망했다.

주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성만찬 식탁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했다.[51]

바울은 오염된 고린도 교회의 식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님도 에덴동산의 본래 의미를 변질시킨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성만찬을 제정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셨던 가죽옷을 고린도 교회에 입혔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만찬 식탁은 식탁의 주인인 예수에게 각자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각성이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개인의 식탁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가족 공동체의 식탁에 예수의 초대를 받아 예수 가족들 안으로 들어온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성만찬 식탁의 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공동체가 해체의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이고, 잘못하면 교회의 존폐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위기의 극복은 다름 아닌 식탁 공동체가 올바른 성만찬 식탁에 모여서 사명을 인지하고

---

[51] **고린도전서 11:23**

일상에서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다.

연구자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힘든 날들을 보낸 때가 있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는가?’ 에 대한 의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을 불러 보아도 ‘잘 모르겠다’ 는 생각뿐이었다. 의심은 심연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의심으로 연구자를 넘어뜨렸다.

하다못해 k목사님께 만나 뵙기를 청했더니, 우선 밥을 먹자고 하셨다.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도 밥 먼저 먹자고 하시더니 편안한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

식탁에 앉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보니 식욕이 절로 났다. 그동안 배가 고팠었는지 목사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안부를 묻고 대답하는 중에 그렇게 심각했던 내 안의 의심들을 그동안의 안부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별 다른 말씀 없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보라고 하셨다.

그 식탁을 나오는데 시원하게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심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벅차올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조금씩 비워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k목사님은 의심이 가득한 내 마음 한 가운데 예수를 주인 삼은 식탁을 펴 주셨다. 배고프고 허기진 예수 가족 공동체 중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식탁을 열어 주셨다. 구원의 주를 기념하며 같이 먹고 마셔 주셨다.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도 하지도 않으시고 예수의 식탁을 재현해 주셨다.

예수의 식탁은 건물 교회와 교회 안 공동체만을 위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붙박이 식탁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의 식탁이 펼쳐졌던 곳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가도, 해변을 거닐다 가도, 빈 들이라도, 이방의 땅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배고프고 병든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식탁을 차려 주셨다.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낙심해서 사명을 잊고 집으로 일터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식탁을 펼치셨다.

연구자가 찾아갔던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로 한하자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미 교회를 떠나셨고 연구자도 다른 교회에 있었고 내 고민에 관여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사명자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신 선배 목사로서 사명을 잊어 방황하는 어린 목사에게 예수의 식탁이 필요할 때 식탁을 열어 주시며 그의 사명을 다하셨다.

연구자를 예수 가족 공동체로 받아 주시고 예수가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식탁을 펼치기만 하면, 다음은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셨다.

연구자도 식탁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식탁을 받았으면 어디서나 예수의 식탁을 펴고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달래주어야 한다는 사명이다.

C.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의 식탁

성만찬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52]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다.

증인의 삶은 성만찬 식탁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몸에 새기고 식탁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53] 아무도 배제되지 않은 식탁에서 예수가 떼어 주는 떡을 먹고 세상에서 살아갈 동력과 능력을 얻는다.

부르심이 있는 곳 어디나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자는 식탁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식탁을 치우고 다시 차릴 식탁 자리로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의 식탁에서 기념의 의미가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반복성과 계속성을 지니는 의례를 뜻하기 때문이다.

성만찬 식탁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차려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겸할 수 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예수의 열린 식탁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위험한 식탁이었던 것처럼, 세상에 식탁을 차리는 일은 고난을 담보하는 것이며 그 고난 앞에서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베드로는 예수와 수많은 식사를 했고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이다. 모두가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을 것이다.

빈 들에서 예수가 식탁을 펼치시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54]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한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가 주시는 떡을 먹었으면서도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한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

[52] **사도행전 1:11**

[53] **쇠얀 키르케고르, 『성찬의 위로』 윤덕영, 이창우 역 (세종시: 카리스 아카데미, 2023), 27.**

[54] **요한복음 6:51**

없어서 떠나갔고 제자들도 수군거렸다.

주변이 그럴 때에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음을 알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허공에 대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자기 확신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서 수치를 당하던 그 밤에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았던 모든 상황과 확신이 무너졌다.

낙심한 베드로가 사명을 잊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본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간 바닷가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식탁을 차려 주시고 먹이시며 베드로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일상을 살게 하셨다.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기억으로 자책하며 식탁을 차리는 일을 멈춰버리지 않도록 “내 양을 먹이라”[55] 사명을 재 확인시켜 주셨다.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가 베드로를 기억하시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베드로에게는 낙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예수를 배신한 상처가 있지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의 식탁에 앉아 예수의 것을 먹고 마시며 배신했던 나를 죽이고 부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일상에서 예수의 식탁을 차려서 예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은 불가능하다. 고난으로 낙심해서 예수를 배신하고 식탁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

[55] **요한복음 21:17**

연구자에게도 닥친 고난으로 낙심해서 배신한 식탁의 기억이 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때였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b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전화를 받았다.

예전 같으면 전화로 길게 상황을 들어주었거나, 당장 만나서 식탁을 열어 먹이면서 위로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장례 중이었고 당장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 타인의 죽겠다는 경고가 엄살로 느껴져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과거에는 b 앞에서 언제라도 요구하면 식탁을 열어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내 일이 급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예수 가족이 부담스러웠다. 나를 공동체에서 떼어 놓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말씀하신 식탁의 사명을 멈춰버렸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처럼 고통으로 낙심한 자를 위한 식탁이 엄청나게 존재했다. 주변에 다른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식탁을 차리며 낙심한 자를 알아봐 주었다. 삭막해진 나를 식탁에 초대해 주고 내가 배신한 식탁의 뒷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먹어 주었다. 부활의 증인들이 차려주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허기가 가시고 나니 내가 돌아선 자에게도 지금의 나처럼 다른 예수의 증인들이 그를 위해 충분히 풍성한 식탁을 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물어보니 역시 돕고 함께 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다고 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으로 예수의 식탁을 배신한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찾아와 예수를 증거하는 식탁을 차려주며 배신의 상처를 아물게 해 준다는 사실이다.

Ⅲ. 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예수의 식탁

대체될 수 없고 대면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였던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대체되었고 비대면 예배로 활성화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교회에 올 때 기독교인들의 필수품이었던 성경책은 무료 성경 앱의 등장과 교회가 운영하는 성경 구절 피피티(ppt) 중계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수는 급감했다.[56]

기도와 묵상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중계된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고받는 성만찬도 성만찬 키트(Kit)의 등장으로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세상에서 매체가 침범하지 못하는 고유 영역이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57]

이런 세상에서 성만찬 식탁의 확장으로 일상에 차려내는 예수의 식탁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식탁은 빠른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며 매체와 물질로 모든 것이 전달된다고 믿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강한 저항처럼 느껴진다.

연구자는 대체 불가능하고 대면이 아니고는 실행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식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생명의 떡”[58]이라고 말씀하신 떡을 나누며 예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식탁이 그것이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대받으며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나누는 식탁이 남았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 식탁은 예수가 함께 하셨던 많은 식탁과 초기

---

[56]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724/1474472 [2024년 9월 26일 최종접속].

[57]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35.

[58] 요한복음 6:35.

교회의 식탁을 다시 해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차려야 하는 식탁의 미래를 보게 한다. 예수가 계신 자리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 펼쳐지는 식탁은 성만찬 식탁의 확장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예수의 식탁을 통해 성만찬이 죽음의 암울한 제단이 아니라 부활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의 식탁임을 재차 확인할 것이다.

A. 기념하며 기억하는 예수의 식탁

성만찬 식탁이 예수가 함께 하셨던 식탁으로 확장되고 변화한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 예수의 식탁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일관된 것은 예수가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시거나 초대를 받으시거나 간에 결국 모든 식사 자리의 주인은 예수이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수가 함께 하시며 주인이신 모든 식사를 예수의 식탁으로 명명하고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수의 식탁을 세 가지의 식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예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과 오병이어로 말해지는 빈들에 차려진 식탁과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과 나눈 식탁이다.

1.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식탁(마 26:26-30, 막 14:22-26, 눅 22:15-20)

기념의 의미를 정리면서 예수의 마지막 식탁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식탁을 논하는 것은 성만찬이 제단이 아닌 식탁인 것과 이 식탁을 기반으로 성만찬이 확장되어 예수의 식탁을 재해석하게 해준 중요한 식탁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3년 동안 숙식을 같이하며 함께 지낸 열두 제자를 초대하셨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59] 예수의 초대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표현이었다.

예수는 이미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계략을 세운[60] 가룟 유다마저 식탁에 초대하셨다. 예수의 식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나 허락된 열린 식탁이었다.

레너드 스윗은 열린 식탁의 메시아인 예수는 식탁의 개방성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다.[61] 예수의 식탁은 예수의 사랑을 배신한 제자에게도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죄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식탁은 선민이라 자처하고 끼리끼리 형성한 식탁에 반기를 드는 혁명과도 같았다.

>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62]

어떤 식탁도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식탁을 상상할 수 없다. 식탁에서 음식을

---

[59] **누가복음 22:15**

[60] **마가복음 14:10-11**

[61]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71-72.**

[62] **마태복음 26:26-28**

먹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예수의 혁명적인 식탁은 예수께서 몸과 피를 온전히 내주고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식탁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구원은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언약을 함께 하는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율법의 규정으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탁의 주인인 예수가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초대하시고 성전뿐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서 구원을 이루고 예수를 기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J. 막 힉스는 성만찬 식탁은 유월절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의 식탁으로 완성된다고 한다.[63]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칭하시고[64]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해체하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65] 함께 하라는 명령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의 범위를 모든 민족으로 확장하셨다.

예수 가족의 확장은 숫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레너드 스윗은 “예수의 가족은 식탁에서 혼자서 반려동물과 식사를 할지라도 예수가 계시는 식탁이라면 예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 까지 한다.[66] 홀로 있더라도 예수의 가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예수를 주인 삼은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도 예수와 식탁을 공유하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된다. 따라서 성만찬 식탁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

[63] 힉스, 『주의 식탁으로 초대』, 79.

[64] 마태복음 12:51

[65] 마태복음 28:19

[66]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29.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구자에게도 예수의 식탁을 따라 확장한 식탁이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식사 여부를 묻는 청년이 기억나는 식탁이다. 청년이 내게 식사 안부를 묻는 물음은 내 식사도 식사지만 청년이 마땅히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으니 같이 먹자는 소리였다.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을 때에도 내 식탁에 찾아오는 청년은 당당했고 그 당당함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나눠 먹고 함께 먹는 기쁨이 내가 열어 놓은 식탁에 가득했다. 그가 사는 세상을 실컷 펼쳐 놔서 나에게 기도 거리를 듬뿍 생기게 했지만 우리는 식탁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가족이었다.

청년이 직장을 갖고 나서는 그의 식탁에 나를 초대했다. 과거의 기억을 함께 한 청년이 차리는 식탁은 기쁨이 배가 되는 식탁이었다. 직장인이 된 청년은 교인이 사회인으로 살면서 부딪치는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했다. 급기야는 빈번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를 식탁으로 불렀다.

내가 밥 먹자고 부르는 소리는 '주일에 교회에 갔느냐'고 묻는 신호음이었다. 청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식탁에 왔다. 잔소리할 것이 뻔한 식탁임에도 그동안 좋았던 식탁의 기억이 그를 식탁으로 오게 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청년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으며 교인들조차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청년과 마주한 식탁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이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예수 가족 공동체의 식탁만은 움직여서 함께 해줄 수 있다. 비록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그를 위한 식탁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며 함께 하신 식탁의 의미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식탁이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 외에서 차려지는 식탁도 성만찬 식탁의 확장의 의미로 차려져야 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정된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혼자 존재해도, 기존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을지라도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가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 차려질 식탁이 사유화되지 않는다. 자칫 식탁을 여는 사람이 예수 식탁의 의미로 식탁을 열었으나 의도치 않게 사유화될 수 있다. 예수의 식탁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책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성만찬 식탁의 확장된 의미로 식탁이 차려져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만찬 식탁의 기념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의 사건을 기념해야만 예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예수 가족 공동체가 식탁의 구성원이 되고 일상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실천하면서 구원의 노래와 더불어 성만찬 식탁은 확장되어 간다.

2. 빈 들에 차려진 예수의 식탁(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요 6:1-14)

예수의 식탁은 불특정하고 낯선 자들로 가득한 식탁이었다. 이러한 식탁들 가운데서도 절정은 예수의 표적과 소문을 듣고 빈들로 몰려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열어 주신 식탁이다.

빈들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느라 배가 고팠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도 가진 것 없이 배고프기는 매한가지인 데다가 상황은 빈들이어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으니 배고픈 사람들을 이곳에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식탁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올려졌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식탁의 주인이 되어 식탁에 놓인 음식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다.

빈 들에 예수의 식탁이 펼쳐졌다. 배고픈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받아먹으며 배부를 수 있는 식탁이다. 빈 들은 예수가 계심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7] 구원의 주님의 식탁이 펼쳐졌다.

빈 들에서 펼쳐진 예수의 식탁은 풀 한 포기 없는 광야 길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재현이며 격상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던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와 음식을 구할 방도가 없는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

사람들은 비록 광야가 익숙하지 않고 서로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68] 광야에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

[67] **요한복음** 15:15

[68] **출애굽기** 16:1-18

있음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형상이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도 출처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눠 주시는 양식으로 예수의 식탁에서 배고픔을 해결했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빈 들에 왜 왔는지 혼자 왔는지 단체인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셨다. 서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낯선 자들이 모였지만 배고픔으로 주리거나 죽는 사람 없이 예수의 식탁에서 예수가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나면 되는 것이었다.

예수의 식탁은 공동체의 관계로만 식탁이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거칠게 말하면 예수의 식탁은 서로의 관계보다도 예수의 식탁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준다. 누구에게나 열리는 예수의 식탁처럼 모이는 사람들끼리 친숙하지 않을지라도,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예수의 식탁에 모였다면 서로 관계를 맺고 식탁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69]

성만찬 식탁의 확장으로 살펴보는 공동체는 빈 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상반된 자세를 살펴보며 정리해야 한다.

제자들은 자신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배고픈 무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빈 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끝내 물리치지 않으시고 예수의

---

[69] 성만찬 식탁도 이와 같다. 예수가 성만찬 식탁에서 자신을 생명의 빵과 음료로 나눠 주시며 예수와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의 식탁이다. 성만찬 식탁은 세례 공동체의 식탁이다. 그렇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 병실에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등은 공동체로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식탁에 앉히셨다. 배고픈 제자들만을 위해 예수의 식탁은 열리지 않았다.

예수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가진 것이나 그들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나아가서 예수 공동체의 식탁은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가 식탁을 열기도 하지만, 예수의 식탁에 앉은 정체 모를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공동체의 정의를 확장해야 하는 부담도 져야 한다.

3. 부활이 일상이 되는 예수의 식탁(눅 24:13-35)

엠마오에서 제자 둘과 함께 하신 예수의 식탁은 예수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가 펼치신 모든 식탁을 정리해 준다. 여러 번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식탁은 성만찬의 확장된 개념이고, 시간과 장소와 음식과 상관없이 예수만 계시면 되는 식탁이라고 말했다.

엠마오의 식탁은 성만찬 식탁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성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식탁으로써 의미가 깊다.

>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확인한 제자 둘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도시였으니 그들은 귀향을 결정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서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석연치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이것저것 물어 오시지만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가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으나 예수를 알아보지는 못한다. 이들에게 예수는 길에서 만난 낯선 타인에 불가했다.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 둘은 어두워져 가는 길로 더 가려는

낯선 자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고 식탁을 차린다.[70]

예수는 여느 때처럼 초대받은 식탁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배운 대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71] 을 초대해서 식탁을 차렸다.

그들이 초대한 사람은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었다. 단지 때가 저물고 어두워지는 길에 홀로 남겨질 사람에 대한 긍휼함으로 낯선 자를 집에 들였다.

연구자가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예수가 무자격한 나를 초대하시고 당신을 주시며 먹여 주신 상황과 유사하다. 이미 죄인인 나를 암흑의 혼돈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

낯선 자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았었음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제자 둘은 예수를 따라다니느라 여러 날 비운 집에 먹고 마실 음식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동행한 배고플 나그네를 모른척할 수는 없었다.

낯선 자는 식탁에 앉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72] 손님으로 앉았으나 주인의 역할을 하는 낯선 자이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의 식탁에서 경험했던 일이다. 예수가 떡을 들어 감사하시는 모습, 예수가 떡을 떼어 주시는 모습, 예수의 식탁이 재현되고 펼쳐진다.

예수가 당신을 들어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을 받아먹으니 급기야 제자의 눈이

---

[70] 누가복음 24:13-29

[71] 누가복음 14:14

[72] 누가복음 24:30

밝아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하니 부활의 주를 알아볼 수 있었다.[73]

제자들도 죽은 영이 살아난다. 부활은 다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의 신비는 예수와 함께한 식탁에서 현실이 된다.

예수께서 엠마오 제자들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며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모습은 성만찬의 모습과 흡사하다. 빵을 떼어 주시며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죽음을 넘어선 식탁의 재현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념은 말씀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치이다.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는 모든 성경에 쓰인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하셨다.[74] 그러나 이때는 제자들이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으나 예수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예수가 떼어 준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확증했다.[75]

예배에서 성만찬 식탁의 부재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만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식탁에서 떡 나눔이 있은 후에 말씀이 확실하게 되고 예수의 실존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성만찬(Eucharist)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기 위해 성전이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면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지도 않으셨다. 예수의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곳에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구원주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부활도 이루셨다.

---

[73] 유진 피터슨, 『일상-부활을 살다』 권연경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77.

[74] 누가복음 24:27

[75] 누가복음 24:32

성만찬의 확장된 식탁의 의미는 이러한 식탁을 의미한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멈춰 선 교회의 식탁을 확장해서 일상에서 예수의 식탁으로 재현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수의 식탁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게 했다. 예수의 죽음으로 함께 죽은 제자들이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시 살아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상기하고 예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수의 부활을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 벅찬 감동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는 그들의 상황을 나눌 길이 없다. 예수의 실존을 함께 했던 예수 가족들이 필요했다. 그 둘은 한걸음에 공동체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서로 돕고 행하면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예수 가족 공동체는 두텁게 형성될 것이다.

예수 가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동체이다. 특히 현실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 개념으로 공동체가 필수이다.

교회 현장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그 영향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를 이어 다닌 교회를 다음 후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가족의 중추 역할을 하던 부모를 잃고 가족의 해체가 벌어지면 이 집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곤란한 일을 경험한다. 가족을 잃은 지체가 상심한 마음으로 부모와 함께 다녔던 교회에 혼자 오면 다른 가족들의 식탁이 다가가기 어려운 장벽이 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고 가족의 상실을 더욱 아파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례를 치를 때는 공동체가 나서서 함께 해주고 위로 하지만 막상 부모를 잃고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에 오면 교회는 혈연 가족들 끼리끼리 모여 식탁을 이루고 가족이 없어진 사람은 가족의 죽음에 갇혀 버린다.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장례식이며 그 나머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준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절절했지만 혈육으로 뭉쳐진 교회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해 표류하며 교회를 나가버리는 교인을 본 적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분의 사례도 있다.

오래전 연구자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만났던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셨고 장례를 치르고 교회로 돌아오니 낯설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이 속해 있었고 익숙한 소그룹에 갔을 때 스스로의 슬픔 때문에도 숨이 막혔지만 구성원들의 극진한 위로와 애처롭게 보는 눈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교사들 모임에서 이름 정도만 알고 지냈던 연구자에게 만날 수 있냐고 연락을 하셨다. 친숙한 관계도 아니고 교사 교육을 같이 받은 정도의 사이여서 조금 낯설었으나 연구자는 그의 초대에 응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식탁을 나눴다.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을 형성했다. 권사님은 이 식탁에서 울고 웃으며 먹고 마셨다. 이 분은 교회에서 나가지도 않으셨고 예수 가족

식탁의 필요성을 깨달으셔서 자신처럼 발을 붙이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식탁을 열고 계신다.

만약 교회가 공동체로 존속하려면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76] 교회의 식탁은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을 잃었거나 해체되었더라도, 혹은 홀로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열린 식탁이며 예수의 식탁이어야 한다.

예수가 주인이고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마음으로 누리는 식탁이어야 한다. 누구도 가족의 이름으로 장벽을 세우지 않고 예수가 정의한 가족 구성원으로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셔야 한다. 주일만이라도 예수의 가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식탁이 차려질 것을 소망한다.

B. 사명 받고 실천하는 예수의 식탁

1. 마태의 식탁(마 9:9-13, 막 2:14-17, 눅 5:27-32)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다.

그리고 길을 가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76] **예수께서는 가족의 정의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막 3:33)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예수는 육신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와 아들로 살기를 부탁하셨다 (요 19:26-27)**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77]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가시던 길에서 제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제자들은 아무 저항 없이 예수를 따라 나섰다. 다른 제자들 7명의 부르심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실 때는 가시던 길에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는 것까지는 다른 제자들과 유사했으나, 다음 행보가 색다르다.

예수께서는 세관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다. 마태도 다른 제자들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르신 마태와 함께 가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으로 향하셔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앉아 음식을 잡수신다."[78]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큰 잔치"[79] 가 벌어진다.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80]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마태의 경우에는 가시던 길을 되돌려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마태의 식탁에 앉으시는 것으로 마태의 부르심이 이어진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니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따라 들어와 마태의 식탁에 앉았다. 이들과 함께 마태는 큰 잔치를 벌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인 죄인의 집에서 죄인이 베푼 잔치에 앉아있는

---

[77] **마태복음 4:18-22**
[78] **마태복음 9:10**
[79] **누가복음 5:29**
[80] **누가복음 9:62**

예수와 제자들을 거세게 비방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81] 마태의 식탁에 앉아 마태의 잔치 음식을 드셨다.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로마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직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가난한 동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다.[82] 세리로 사는 마태에게 이웃이 존재할 리는 없을 노릇이었다.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했던 시절에 마태가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해도 세리인 마태의 초대를 받아들일 이웃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세리를 초대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동네에서 그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태의 집은 마을 안에 있었으나 철저히 고립된 집이었다.

이런 마태가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를 초대했을 리도 없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께서 마태를 앞세워 그의 집을 열게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83]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마태의 열린 집으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 가운데는 마태의 동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마태를 마을 잔치의 주체자로 세우시고 따돌려졌던 그의 집을 누구나 들어와 잔치를 즐기는 집으로 바꾸셨다.

---

[81]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막 2:17)**

[82]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눅 3:17) 경고가 말해주는 것처럼 세리는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83]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눅 19:5)**

마태가 베푸는 잔치 식탁에 예수가 앉으시니 마태의 식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식탁이 되었다. 예수의 식탁에서 세리 마태는 죽고 예수의 제자 마태로 다시 태어났다.

세리로 살아오는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소외와 버려짐의 아픔이 예수의 식탁에서 환대받고 치유되었다. 자신이 버려졌던 만큼 자신도 버리며 살아왔던 마을 공동체를 초대하고 받아들이면서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열어 주신 거듭남의 표식은 잔치하는 마태의 식탁이다. 공동체에서 죄인 중의 죄인으로 소외된 마태를 들어서 빵처럼 떼어 공동체에게 주시며 연합의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

사명자로 살아갈 마태를 예수의 식탁에서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회복시키시고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다. 마태는 잔치의 기억으로 다른 유대인에게 예수의 식탁을 전파할 사명이 주어진 것은 당연하다.

마태의 식탁은 오늘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수의 부름을 받는 일은 세리로 살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어부로 살다가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처럼, 소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처음부터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아닌 이상, 다양한 학업과 직업군에서 종사하다가 지나가시던 예수가 보시고 부르심을 받는다.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르심에 거침없이 따라나선다고 하더라도 마태처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예수의 식탁에 앉아 깊숙이 가려진 상처를 예수께 치유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수 앞에서 부족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환대를 받고 예수가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진 상처가 사역의 굽이굽이 마다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세우시는 방법으로 큰 잔치를 열어 마을 공동체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 마태가 섰음을 널리 공포하셨다.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 앞에서 들려지고 축사하며 떼어지고 나눠지는 잔치가 벌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 공개되고 개방되는 절차를 밟는다.

잔치를 마친 마태는 예수의 제자로서 거리낌 없이 예수를 따라 집을 나섰을 것이고 이후로 그의 사적인 생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마태의 인생은 예수의 제자로 맡겨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의 생존 방식도 이와 같다.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된다.

2. 마르다의 식탁(눅 10:38-42)

예수의 개방된 식탁의 절정은 마르다의 식탁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는 이날도 제자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수의 등장으로 온 마을이 들썩거렸을 때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다. 이에 예수는 거침없이 그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명예는 목숨과 같았고 명예를 더럽혀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였다.

명예와 수치라는 이분법으로 끼리끼리 집단을 이루고 폐쇄적인 장벽을 세운다. 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식탁이었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는 지로 명예와 수치를 판가름했다. 차별화된 식탁이 당연했고 개방적이고 평등한 식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나와 식탁을 겸하고 가리는 것 없이 무엇이든 먹고 마시는 예수 식탁은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끼리끼리 집단에 대한 도전이었다.[84]

집단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공간적 경계를 정확히 하고 남녀의 일을 안과 밖으로 구분했다.

여성에게는 집 내부의 공간만을 허락해서 집 안의 일을 담당하게 했고 그 외의 일들과 집 밖의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남성이 담당하고 책임지는 영역이었다.[85] 그러므로 집의 문을 열고 외부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완전히 남성의 영역이었고 명예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마르다가 자기 집을 열어 지나가는 남성 예수를 초대했다. 자기 집 바깥 문을 열고 손님을 초대하는 일은 남성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마르다가 남성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명예를 더럽혔다. 전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질서를 혼란하게 해서 수치스러운 사회를 조성하고 말았다.

---

[84] 존 도미닉 크로산, 『역사적 예수』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427.

[85] 브루스 J. 말리나, 『신약의 세계 : 문화 인류학적인 통찰』 심상법 역 (서울: 솔로몬, 2004), 93.

마르다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와 함께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아무나를 성과 나이와 지위와 계급과 상관없이 맞아들였다. 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명예도 수치도 집어 던져버렸다.

마르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다.

예수 또한 여성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갔다. 남성이 여성의 초대를 받고 여성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

마르다의 식탁은 이미 사회적인 통념이 깨어져 나간 곳이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차별 없는 혁신적인 식탁이 제공되어야 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보니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태산 같았다. 일이 많아지니 자기가 차려내야 할 식탁이 너무 커 보였다. 마르다는 어느새 사회에서 요구받았던 여성들의 공간으로 들어가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안주인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느 때 같으면 손님 대접에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왔을 터인데 오늘 마리아는 남성들이 모여 있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여성 마리아가 남성들의 공간에 앉아 여성으로서 손님 식탁을 차리는 일을 돕지 않는 것이 마르다는 거슬렸다. 마르다는 사회가 정한 여성들의 공간에서 다른 여성 마리아를 탓하기 시작했다. 어디 마르다 뿐이겠는가 예수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마리아는 이미 규범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 예수 또한

제자들이 앉는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인정하시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시작하신다.

마르다가 아무리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여 다녀도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를 떠나지 않는다. 마르다가 예수께 마리아를 거기서 여기로 보내 달라고 간청해도 예수는 마리아를 보낼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거기서 나와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신다.[86]

마르다도 마리아만큼 예수께 목말랐던 사람이었다. 마르다가 예수를 초대하기까지 넘어가야 할 장벽이 많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허물어뜨린 경계를 예수를 따라 들어온 많은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긴 순간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다시 긋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르다의 식탁이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수단으로 축소되고 전통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식탁으로 고착되어 버렸다. 식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손님으로 방치해 버렸다.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느라 예수를 손님으로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광경은 우리도 흔히 보는 모습이다. 소모임이나 구역예배, 심방 등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식탁을 차려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르다가 되어 버린다. 초대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흠 없이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식탁의 음식에만 집중하다가 예수의 발치를 놓치게 된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실상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실시간 예배 방송을 중계하거나 영상을 맡는 담당자의 경우에 좋은 영상과

---

[86]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1-42)

중계에 책임을 다하다 보면 예배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예배 밖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로 조직화하고 세분화하는 교회가 효율적인 예배를 위해 예배 안에서 급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의 식탁은 마르다의 집에 여지없이 펼쳐졌다. 마르다는 예수를 초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나 초대받는 예수의 식탁에 마르다가 초대된 것이다. 예수가 마르다의 식탁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식탁의 손님으로 오신 예수를 주인으로 알아본 여성도 있다.[87]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로보니게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은 집을 나섰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출신이어서 유대 남성인 예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혈통의 경계를 넘고 여성의 벽을 넘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여인이 상상했던 것처럼 유대인 남성 예수는 겁도 없이 앞으로 나온 이방 여인을 질책했다. 그를 개 취급하며 당신은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그리스도라며 여인을 밀어냈다.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88]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위계질서가 예수와 여인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다. 예수의 식탁이 그 자리에 차려졌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예수의 발언은 지금까지 사람을 가리지

---

[87] 마가복음 7:24-30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시려고 했으나 한 여인이 알아보았다.

[88] 이 여자가 예수를 부르며 따라오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마 15:23b) 말릴 정도로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않고 아무라도 함께 하셨던 예수의 식탁에 위배된 논쟁이다. 누구라도 예수를 초대하면 그곳에 예수의 식탁을 만드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예수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여인의 초대를 거절하고 예수의 식탁을 열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식탁은 자칫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한다. 그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초대되는 예수의 식탁에서 초대받은 자의 상황과 환경이 자칫 식탁의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마르다의 분주함이 예수를 손님으로 밀어낸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는 그의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예수의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를 밀어내지 않았다. "주여 옳소이다"[89] 예수를 식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예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자신을 잃지 않고, 개 취급을 받는 수치를 넘어가면서, 예수의 식탁의 아무나가 되어갔다.

예수 식탁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식탁을 이룬다. 예수의 식탁은 오랫동안 머무르는 식탁이 아니다. 예수의 초대를 받고 예수와 먹고 마셨으면 예수의 식탁에서 초대받았던 자가 파송되고 실천하는 사명이 남아 있다.

3. 고넬료의 식탁(행 10:1-48)

---

[89] 마가복음 7:28a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 이달리야 부대의 백부장이지만 경건하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정도이다.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고넬료의 식탁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신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0킬로미터(도보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수행한다. 베드로에게 식민지 지배자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초대하는 고넬료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의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을 보낸다.

이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장하여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내려오는 한 그릇을 본다. 그릇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소리가 있으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졌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와 3년을 먹고 마시고 예수의 식탁[90]을 경험했음에도 베드로는 어느새 유대인의 정결법을 습관적으로 지키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다.

---

[90]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1)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탓할 때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되받으셨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셨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데 문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베드로를 맞이한다.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부정한 곳에 들어왔다.[91]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는다. 베드로는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키며 자신은 예수의 사명 받은 사람임을 밝힌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거절했던 자신의 정결법이 의미를 잃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더 이상 이방인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지점에 베드로가 이른 것이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차려진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다.

예수의 새로운 언약이 실천되는 고넬료의 집은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자도 남자도 주인도 하인도 군인도 부하도 이 집에서는 모두 차별 없이 부름 받았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집에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한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이방인이라 치부했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다.

---

[91]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행 10:28)**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과 함께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고넬료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거리낌 없이 머문다.

고넬료의 식탁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차려진 구원의 식탁이면서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식탁을 기억하게 했다. 새 언약의 식탁에서 정결법으로 지배당한 옛 식탁을 철폐하고 그의 사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예비하게 했다.

고넬료의 식탁은 선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예수의 식탁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오류를 각성하게 한다.

가족 전도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전도를 마음먹고, 행동에 옮기면서 지나친 열정으로 지쳐 떨어지기 십상이다. 연구자도 부모님을 전도해야 한다는 열정이 가득했었다.

본가에 갈 때면 전도의 부담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이 빠졌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께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파견해 달라고 부탁도 해놓고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했다.

부모님은 딸의 간곡한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착한 부모님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셔도 윤리적으로 잘 사시는데 전도하는 것으로 불편을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주일 날 부모님은 ‘오늘 교회에 왔다’ 고 전화를 하셨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부탁했던 교회의 전도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셨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부모님이 어떻게 왜 교회에 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날 교회에 가고 싶으셔서 가셨다고 하셨다.

'예수의 식탁의 주인은 예수시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게 없다. 식탁의 주인이 식탁에 초대하실 명단을 작성하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는 순간 사명은 희미해지고 인간의 열정만 남아 지치고 피곤해진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차려진 예수의 식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지닌 옛 언약의 정결법을 무너뜨려야 했다. 유대인 집단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며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베드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하셨던 예수의 식탁을 기억하고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의 식탁을 차려야 한다.

C. 세상으로 나가는 예수의 식탁

1. 디베랴 호숫가의 예수의 식탁 (요 21:1-14)

예수가 죄인처럼 십자가 형벌로 죽는 것을 실제로 본 제자들은 두려움과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인해 예수에게서 도망쳤다. 예수는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의 식탁을 잊었다.

어부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다. 3년 전에 떠났으나 지금도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일터였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물고기 잡는 일이 웬일인지 밤이 새도록 아무 수확이 없었다.

그물만 던져놓고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해변의 낯선 자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지금까지도 안됐는데 뭐가 되겠는가 싶었지만 그의 말을 따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경험했던 일이었다.[92] 예수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저 낯선 자가 예수임을 감지했다. 요한이 빨리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수가 오셨음에 분명하다. 베드로가 해변에 서 계신 예수를 향해 뛰어갔다.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건져내는 제자들도 예수가 다시 오셨음을 확신하지만 도무지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다.

예수께 달려오는 베드로를 맞이하시며 예수는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을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 주셨다.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놓으시며 아침을 차리신 예수의 식탁에 제자들이 앉았다. 분명히 해변의 낯선 자는 예수시고 조반을 차리시고 부르신 분도 예수신데,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부활이라는 말조차 생소한데 실제로 부활은 일어났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부활은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93]

---

[92]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었던 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눅 5:3-6)

[93] 피터슨, 『일상-부활을 살다』, 116.

새벽녘에 빈 무덤가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여자들처럼,[94] 엠마오에서 부활한 예수와 식탁을 마주했던 두 제자처럼, 예수의 식탁에 참여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직접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의 간섭하심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부활은 삶이 된다.

부활은 가장 막연하고 신비로워서 설명할 길이 요원하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은 경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은 일상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요구한다. 죽음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에서 예수가 떼어 주시는 떡을 먹어야만 실제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의 식탁이 없었다면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만나고 그를 따르며 예수의 삶에 깊이 들어가 관계 안에서 동행했지만, 지나간 추억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묻혀버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만찬으로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 가지고는 식탁의 가치를 다 말할 수 없다.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 확장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식탁으로 확장을 거듭해야만 그 가치를 다 할 수 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식탁에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며 예수를 기념하라고 하신 기념의 뜻이 명확해진다. 기념은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

[94]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마 28:9)**

재현하며 현재를 살고 미래를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식탁을 나눈 제자들은 여기서 멈춰 안된다는 것을 안다.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부활은 살아내야만 알 수 있는 신비한 현실이다.

그래서 박경미가 "부활은 삶과 역사의 근원적인 변화이며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을 넘어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95] 고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서 망연자실했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로 죽음을 넘어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 세워진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언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96] 부활하신 예수가 차려 주신 식탁을 그들의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확장해 간다.

2.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한 에덴동산의 식탁(행 2:43-47)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차려 주신 식탁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식탁 공동체로 거듭났다.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봤고 들었으며 그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까지도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

[95] 박경미,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14), 214.
[96] 사도행전 4:33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정체성을 잃고 흩어졌지만 죽음을 이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루가 멀다고 모여서 식탁을 이루고 새로운 예수 식탁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해 갔다.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를 따랐던 기존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내적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된 공동체였다.

공동체의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면면이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내부의 변화로 새로워진 공동체가 수립됐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97] 예수의 분부에 순종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으며 성령의 강림이 그들의 공동체에 불처럼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거듭났다. 각자의 내적인 변화는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나타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드러났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당시는 "새 술에 취한 사람들"[98] 이라고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완전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난 증인 공동체는 타락해서 쫓겨나기 전의 에덴동산을 회복한 것 같았다.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곳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에덴동산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

[97] **사도행전 1:4**

[98] **사도행전 2:13**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에덴의 붕괴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 것처럼 먹어버린 사람들의 탐욕이 부른 참사였다.[99] 에덴동산에서의 탐욕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해서 하나님의 나라 식탁 공동체를 해체한 데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공유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곳으로 완성됐다. 사유화로 해체된 에덴이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나눠 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회복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으나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이웃을 위해 소유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교제하는 식탁을 창설했다.

새로운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지만 다양함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맡기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00]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식탁을 공유했다.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관계를 이루고 모여서 떡을 떼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식탁에서 예수 가족을 이루었다.[101]

---

[99]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100] **사도행전 1:8**

[101] **사도행전 2:46**

예루살렘 성만찬 식탁의 공동체가 날마다 침묵과 어두운 분위기로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드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부활의 증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식탁을 나누었을 것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서로에게 통용되는 경험을 나누고 섬기며 식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만찬(Eucharist)의 확장된 식탁을 함께 하는 공동체는 궁핍한 사람이 없는 일상을 공유했다. 새 술에 취한 공동체라고 조롱했던 자들과 멀리서 지켜보던 자들에게도 예배와 식탁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은 명확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102]

마르다의 식탁이 개방적이고 평등한 식탁의 결정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식탁은 마르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에 집중한 나머지 집주인 노릇을 하느라 예수를 손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마르다의 식탁이 예수의 식탁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본인을 소외시켜버렸다. 본인의 소외는 식탁의 사유화로 인한 폐해이다. 예수의 식탁으로 다 함께 누릴 식탁을 자신의 식탁으로 사유화함으로 오염시켜 버렸다. 그래서 식탁은 철저히 예수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펼쳐져야 한다.

사도행전 교회의 식탁은 마르다의 식탁에서 어긋나버린 예수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인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며 개방적이고 평등한 식탁의 완성본으로 형성되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교제하며 궁핍한 자가 없는

---

[102] 사도행전 2:47

식탁에서 모여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

형제애의 식탁, 빈부 차도 없고 계급이나 지위도 없는 공동체의 식탁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이 욕심이나 질투, 시기, 증오 없이 행동하는 곳에 열린 식탁이다.[103] 이곳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에덴동산이 펼쳐진 것이다.

이와 같은 예배와 식탁을 이룬 초대교회를 현재에도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그린 곳이라고 동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과 성만찬으로 균형을 이룬 예배 공동체가 교회 안팎의 기대를 채우며 부흥의 의미를 만족시켰다.

외적으로 보이는 숫자만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초대교회가 말해준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공동체가 식탁을 함께 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부흥을 가져온다. 이러한 부흥의 증거들, 다시 정리하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을 이룬 예배와 내부에서부터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의 형상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대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한국 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1%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70.4%로 상당하고, 목사에 대한 신뢰도도 교회의 신뢰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기다 75.2%의 주변인들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사회는

---

[103] 크로산, 『역사적 예수』, 430.

기독교가 공공성에 기여하지 않는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한국 교회를 평가한다.[104]

초대교회가 사회에서 받았던 평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배와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라는 경고이다.

첫째로는 균형 잡힌 초대교회 예배를 이상적이라고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성만찬 식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로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하며 궁핍한 자가 없었던 교회의 식탁이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양극화된 상황을 사회 현상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경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차별의 식탁만 잔재로 남은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며, 밖에서는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그러진 상황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비난과 무관심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해서 교회는 이름만 덩그러니 남을 수도 있다.

3. 고린도 교회의 소망의 식탁(고전 11:17-34)

고린도 교회는 위기 경고를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는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기만 하다고

---

[104]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23/02/기윤실2023한국교회신뢰도여론조사_결과발표회PPT.pdf [2024.11.01. 최종접속]

말한다.

그렇다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는 식탁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아 차리라는 것이다. 그 위기가 교회 안에서 밝혀지는데, 그 원인은 분쟁이었다.

분쟁이 표면화되면 교회와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각 지체의 영육에 심각한 균열이 갔을 것이고 공동체가 식탁에 모이는 것이 해로운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앞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만든 혁신적인 새로운 성만찬 식탁 공동체를 에덴동산의 회복이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흩어지고 깨어진 지체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사유화됐던 식탁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누구나 공평한 식탁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쟁으로 깨어진 식탁은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식탁이 되어버렸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세상의 공동식사[105] 형식이 교회의 식탁 안으로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교회의 식탁에서 먼저 먹고 배부른 자와 못 먹어서 배고픈 자가 생기고 음식이 차별을 만들었다. 모이면 모일수록 불평등한 식탁이 만연하다.

---

[105] **당시 고린도에서 저녁 식사는 매우 중요한 사회활동을 의미했다. 초대한 주인이 누구를 초대하고 초대받는가로 사회에서의 유력한 정도를 나타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식사의 경우에도 식탁에 누가 어디에 앉는 지와 어떤 음식을 누가 먹는 지로 손님을 차별하는 것이 공공연한 식사 예절이었다. 하물며 같은 식탁에 앉더라도 사회 계급에 따라 질이 다른 음식을 먹었다. 앨버트 벨,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 오광만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358-364.**

평등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식탁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펼쳐지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각자의 것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나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교회(ἐκκλησία)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교회(ἐκκλησία)는 어원적으로는 불러내다(ἐκκαλέω)라는 복합동사의 명사형이다. 교회(ἐκκλησία)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회중이라는 뜻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106] 그래서 교회(ἐκκλησία)는 건물과 장소만을 뜻하는 협소한 의미뿐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개념이다.

교회(ἐκκλησία)에서의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식탁에 내놓았다면 그 음식은 교회 공동체와 공유할 음식이다. 그러므로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가져온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

세상의 공동식사처럼 유력한 자가 우위를 차지해서 먼저 먹고 나머지 사람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식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면 공동체의 식탁이 사유화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결과이다. 불평등한 식탁은 이미 예수의 식탁이 세상의 식탁으로 전락해 버리고 예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06] 장계은, “바울의 공간의 윤리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143-144.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의 식탁과는 반대의 형상을 낳게 된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며 빈궁한 자가 생겨나고 서로를 돕지 않으며 교제하지 않는다.

바울은 분쟁하며 깨어진 교회를 향해 성만찬 식탁을 당장 고만두라고 하지 않았다. “주께 받은 것” 사명을 전하며 그 사명이 완수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실행했다.

성만찬을 제정하고 식탁의 의미를 잃지 않게 했다. 성만찬 식탁을 올바로 실행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소망했다.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107]

예수의 성만찬(Eucharist)이 제자에게 배신당할 밤에 화해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으며[108]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언약을 식탁에서 주셨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의 사명을 다했다.

설령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성만찬(Eucharist)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듯이 보일지라도 올바른 성만찬(Eucharist) 식탁의 회복만이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J. 막 힉스는 “식탁은 한 몸인 교회 안의 다양성을 초월하는 공동체의 행위”[109] 라고 한다. 식탁만이 다양성을 초월해서 연합할 수 있다. 분쟁하며 식탁을

---

[107] 고린도전서 11:23-26

[108] 키르케고르, 『성찬의 위로』, 143.

[109] 힉스, 『주의 식탁으로 초대』, 125.

오염시킨 교회일수록 성만찬(Eucharist)의 올바른 시행으로 식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Eucharist) 식탁의 오염인 분쟁은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사실을 망각해서 일어났다. 성만찬(Eucharist) 식탁의 주인이 예수임을 잊은 것이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초대를 받아 식탁에 앉은 사람들임을 잊었다.

음식을 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식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예수를 밀어냈고 예수 가족 공동체를 소멸시켰다. 예수를 잊은 식탁은 예수 대신 다른 것을 기념하고 배를 채우는 빵이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식탁의 오염은 예수가 가르쳐준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책이다. 성만찬의 폐쇄가 아니라 성만찬 식탁의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 신분과 지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같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오직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공동체의 식탁을 회복하는 소망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Ⅳ. 성만찬의 확장으로 본 일상의 식탁

이번 장에서는 성만찬(Eucharist)의 확장된 식탁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일상의 식탁 이야기는 연구자가 식탁을 받기도 하고 차리기도 하면서 경험한 사례가 논문의 내용을 이룬다.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전개하면서 일상에서 적용하는 형식을 선택했다.

일상의 식탁은 앞에서 논거한 성만찬 식탁의 확장인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동체의 식탁, 사명을 받고 실천하는 식탁,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의 식탁임을 다시 한번 삶에서 적용되는 실례로 증거하고 예수의 식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시할 것이다.

A. 돌아온 딸을 위한 어머니 식탁 : 돌아온 탕자를 중심으로(눅 15:11-32)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이다. 연구자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행보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으시며 베푸신 잔치의 모습을 연구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목사가 되어 어머니께로 돌아온 딸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식탁을 열어 주신 내 어머니의 식탁에 적용할 것이다.

전개 과정은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연구자가 받았던 식탁의 사례를 성만찬의 확장이 이룬 예수의 식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아버지는 이유도 뜻도 묻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그 후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분에 넘치는 생활을 했고, 그가 빈털터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거기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덮쳐서 그는 궁핍한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흉년을 맞아 다같이 어려운 나라에서 이방인은 오갈 데가 없었다. 그렇지만 한때 함께 놀고 즐기던 친구들이 있으니 붙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자비는 그를 돼지 치는 일에 몰아넣는 것까지였다. 그는 유대인이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 돼지 치는 일은 그에게 금기시된 일이었으나 당장 굶어 죽을 판에 자신의 법으로 따지고 피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돼지 먹이라도 먹으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형편마저 녹록지 않았다. 굶주림은 자신이 버리고 왔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정체성과 굶주림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요구했던 몰염치한 아들로서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는 최소한의 염치마저 지킬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집의 품꾼으로 받아 주시기라도 한다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갔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을에 들어서니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엄두가 나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가 보였다. 납작 엎드려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일으키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니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라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거지꼴인 아들을 얼싸안아 집으로 들이신다. 그리고는 당장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아들로 인정해 버리신다. 아들은 품꾼이면 족했는데 굶주림만 면하길 바랐는데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맞이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반기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시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온 마을에 공포하신다. 아버지는 다른 이들은 탕자라 부르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부르신다.[110]

---

[110] **누가복음 15:1-24**

연구자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먼 곳으로 이주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곳으로 떠난 것은 아니지만, 부모 재산의 한 분깃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 학비와 생활비로 당연하게 받아서 썼다.

어려서는 도시에 있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결혼해서는 새로운 가족과 사느라 온통 나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 고향의 부모와 동생들을 돌아볼 여력 없이 끊임없이 일하며 공부하고 오직 나 만을 위해 살았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 탕진하고 바닥이 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고향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 낸 것처럼 연구자도 지치고 힘들지 않았다면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도시에 나간 후 처음 잠깐은 수시로 본가를 드나 들었지만, 도시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고향보다 더 편해진 타향살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시 생활이 늘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합당해지면서 고향은 되려 내게 먼 곳이 되었고 부모님은 연로해 가시고 어느덧 아버지는 소천하셨다.

어느덧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훌쩍 지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교회가 마련해 준 사택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어머니는 먼 곳에서 돌아온 딸을 잠깐 외출했던 딸이 돌아온 것처럼 맞아 주셨다. 이러 저러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사택 살림을 도맡아 주셨다. 어머니가 맡아 주신 살림은 딸이 때마다 굶지 않도록 식탁을 차려 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식탁에서 계절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계절 음식으로 식탁을 차려

주셨다. 봄이면 신선한 쭈꾸미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게 해 주셨고, 봄은 입맛이 없는 계절이라면서 봄나물을 참기름으로 무쳐서 쌉쌀하고도 고소한 맛과 향기가 우리 집을 가득 채워 입맛을 돋워 주셨다.

여름이 되면 감자 찌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포실포실 갈라진 뽀얀 감자는 밥 대신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데도 감자만 먹으면 힘이 없다면서 언제나 밥을 차려 주셨는데 빨갛게 양념한 도라지를 곁들여 밥을 한 그릇씩 먹게 하셨다.

늙은 호박 찌개가 올라오면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가을을 느낄 틈도 없이 간다고들 하지만 어머니의 식탁에 올라온 늙은 호박 새우찌개로 나는 가을을 만끽했다. 흰 쌀과 조와 흑 미를 섞은 기막힌 조합으로 지어 주시는 밥을 내가 영양밥이라고 명명할 때마다 어머니는 하하 웃으셨다.

해가 빨리 기울어가는 겨울이 다가오면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추우면 배고프다고 들어오자마자 밥 먼저 먹게 해 주셨다. 어머니의 겨울 특별실은 육개장이었다. 그동안 햇빛에 말린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양지머리 고기를 푹 삶아서 숙주와 대파와 함께 푹 끓여 내주시는 육개장은 더 이상 보양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세 끼를 갓 지은 밥으로 차려 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맛으로 소문난 고장에 있었으면서도 어머니의 식탁 때문에 잔뜩 눈이 높아진 나는 어머니의 식탁을 능가할 식당을 찾아보지 못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아들을 환경과 상황과 이유에 상관없이 맞아들였던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도 오랜 세월 타향살이로 지쳐 돌아온 딸을 맞아 주시고 기뻐하시며 어머니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 주셨다.

어머니의 식탁에서 먹고 마셔 보니 그동안의 삶이 지쳐 있었으며 제대로 먹고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껏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몸이 긴장을 풀고 몸도 마음도 풍성해졌다.

그 맛과 냄새와 분위기와 웃음은 지나갔지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탁의 기억이 힘이 된다. 인간 예수가 제자들에게 예수와의 마지막 기억을 식탁에서 기념이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은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염된 식탁의 회복은 예수가 가르쳐 주신 올바른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소망을 둔 것처럼, 교회도 사람도 식탁의 회복만이 소망이다.

회복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떠남을 전제한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배부른 연구자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완수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았다.

>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 오늘도 어제처럼 일하느라 동생의 귀향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이 먼 나라에서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 한 편으로는 그 무모하고도 과감한 행동이 부러우면서도 동생의 일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허랑방탕한 동생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라는 사실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동생에 대한 질투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집으로 들어 갈 수가 없다.
>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달려 나오셔서 아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를 즐기자고 한다. 분노로 가득한 맏아들에게 지금까지 아버지와 살았으니 아버지의 것이 모두 맏아들의 것이고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신다.
>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동생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았는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서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111]

---

[111] **누가복음** 15:25-32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가면서 연구자도 맏아들처럼 어머니의 식탁에 들여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발걸음이 있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맏아들을 집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내 어머니도 어린 딸을 대하시듯 나를 집 안으로 들이시는데, 문밖에 세워 놓은 맏아들의 모습이 내게도 있었다. 연구자가 문 밖에 세워 놓은 것은 어머니의 식탁에서 어린 딸로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을 접고 성숙한 어머니가 되어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경에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끝을 맺는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인정해야 한다. 아버지의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온전히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잔치를 누려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잔치를 누릴 수 있으려면, 맏아들이 동생을 질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어린 아들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동생을 무조건 용서하고 아버지의 식탁에 앉히신 것을 맏아들은 재현해야 한다. 아버지의 모습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아버지의 어린 아들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연구자도 더 이상 어머니의 어린 딸로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어머니가 차린 식탁에서 먹고 마신 만큼 내 식탁을 차려야 한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식탁을 펼치기 위해 떠나야 한다. 어린 딸의 역할로 식탁을 받기만 하며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 내가 어머니의 식탁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세상에 차려내야 하는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연구자는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버지의 잔치에 억지로라도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의 어린 아들에서 아버지의 식탁을 재현하는 아버지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구원의 식탁을 차려야 한다. 나도 어린 딸에서 어머니가 되어 어머니의 식탁을 재현하며 움직여야 한다.

성만찬의 확장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빵을 나눴던 식탁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의 식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연구자에게 어머니의 식탁은 일상에 펼쳐진 예수의 식탁이었다. 식탁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을 차리라는 사명을 준 것이다. 이 사명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책은 성만찬의 식탁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재적으로 사명자의 식탁을 차려내는 것이다.

B. 움직이는 식탁 :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성을 중심으로(요 4:1-29)

사촌 동생이 암이라는 소식을 내게 전한 것은 2023년 3월 중순이었다. 연구자에게 사촌 동생은 은인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장 할 말을 잃었었다. 연구자가 대학 진학 때문에 상경해서 고모 댁에서 주거를 허락받고 동생 방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다.

당시 사춘기를 힘겹게 넘고 있는 청소년과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의 성장기를 함께 한 추억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학생 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생은 내가 읽는 책을 읽었고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동생은 친척 집에서 지내는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내 편의를 봐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게 해 주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만났고, 생활이 바빠져서 자주 만날 수 없는 때에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본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을 하러 병원에 다닐 때 병원에 같이 다녀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해왔고, 나는 한 치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4월 말경부터 항암 1차를 시작으로, 1주 후 외래 검진, 2주 후 2차 항암, 다시 3차, 4차, 9월 중순에 8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10월에 수술, 퇴원하기까지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동생의 암 치료 진행 과정에 동행하면서 연구자는 예수의 식탁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예수의 식탁은 부활 예수의 생명이 깃든 구원의 식탁이며, 성만찬의 확장된 표징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식탁이면서 동시에 어디서나 차려지는 식탁이다. 예수를 환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집에 차려졌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도 차려졌다. 때로는 집이 아닌 들녘의 바위 위에도, 이방 땅 수로보니게에도 차려졌고, 사마리아 여성을 위해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예수의 식탁이 열렸다.

예수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는 길을 선택했다. 먼 길에 피곤하고 배고픈 예수와 제자들은 정오가 되어 비어 있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다.

동네 우물가는 집 안을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이면서 마을 공동체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소이다. 우물가가 비어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바깥에서의 일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우물가는 외부 영역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는 이방 유대인 남성 무리가 식사를 하고 쉴만한 장소로 빈 우물가를 택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제자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쉬게 하고 식량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 물을 길러 나왔다. 평소 같으면 비어 있어야 할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우물가에 물을 길을 수밖에 없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가에 가니 우물가에 앉아 있던 남자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112] 예수는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샘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밝힌다.

여인에게 우물가는 마지못해 오는 장소였다. 우물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야 하지만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장소이기도 했다. 갈증이 나지 않는 물이 있다는 예수의 말은 여인에게는 구원이었다. 여인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오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간구한다.[113]

예수는 난데없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한다. 예수는 그에게 현재 살고 있는 남편까지 여섯이 있지만

---

[112]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쓰던 그릇으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전통적인 관습과 금기에 제한받지 않고 우물가에 오셨다. 캐롤 A. 뉴섬 · 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8.

[113] 김재성은 예수가 물을 구하며 처한 목마름과 피곤함과 유사하게 우물을 길으러 온 여인에게도 목마름과 고단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질감으로 예수가 제공하는 생수의 기대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으며,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갔다고 한다. 김재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대한 개성화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사상』 187 (2019), 20-21.

>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신을 방치하면서 빈 우물가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알아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감지한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면 알려 줄 것이라 품고 있었던 질문,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여인에게는 예배를 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빈 우물가를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도 갈 수가 없었다.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다.
>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동네에 전하러 공동체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114]

동생에게 암이 발발하고 만난 의사는 암의 발생 원인을 주변과 환경과 일상의 습관 등에서 찾으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하고 했다. 암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자칫 자신을 탓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원인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우린 과거를 돌아보며 '왜 암에 걸렸는지' 암에 걸릴만한 것이 있었는지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또한 지나친 암에 대한 정보의 홍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사의 치료와 예수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당장 동생의 현실은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로 바짝 마른 빈 우물가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동생은 지금까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 미모며 학벌이며 지식이며 솜씨며 가정이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께 드리며 살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당장 빈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께 물 한 잔 드릴 수 있는 바가지조차 갖추지 못한 병든 몸이었다. 우리는 동생이 예수께 드리며 감사했던

---

[114] **요한복음** 4:1-29

식탁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셔서 차려 주시는 식탁이 시급했다.

1차 항암을 끝내면서 동생 집의 식탁은 교회가 되었다. 평소에는 '매일 성경(성서유니온선교회)'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에는 '매일 성경'의 가정예배 순서지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나누고, 성만찬을 했다.

성만찬 식탁은 봉헌으로 시작해서 감사기도, 성만찬 제정사,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을 중보기도하고 분병을 하고 먹고 마셨다.

성만찬 식탁에서 사용되는 빵은 환자를 고려해서 밀가루 양이 적은 빵으로 교회력에 맞춰서 빵의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선택했다.[115]

잔을 채우는 포도주는 술을 대신해서 머루 주스로 잔을 채웠다. 성만찬 잔으로는 불투명한 베이지색 잔을 사용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받는 사람이 투병 중인 환자여서 금장으로 반짝이는 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활절에는 흰색 잔을 선택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했고, 수술이 끝난 때에는 흰 잔에 꽃무늬가 있는 잔을 사용해서 감사의 식탁을 열었다.

연구자는 평소 교회의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빵과 잔의 획일성이 성만찬의 의미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성만찬이 예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식탁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력과 교회 전체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빵과 잔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는 다양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만찬 식탁은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성만찬 식탁의 쇠퇴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

[115] 사순절에는 고난을 상징하는 딱딱하고 거친 빵, 부활절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흰색 빵, 성령강림절에는 일반적이지만 밀가루 함량이 되도록 적은 쌀 빵을 선택했고, 성탄절에는 특색있고 달콤한 축하를 담은 향긋한 빵을 선택했다.

동생은 항암 치료가 진행될 수록 숱 많던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부기가 심해진 다리 때문에 앉고 서는 것조차 힘든 상황들로 이어졌다. 하루에 세 번 먹는 독한 약을 먹기 위해 식탁은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우는 곤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되어갔다. 입맛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먹는 양도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암환자의 특별식을 먹기보다는 일상의 식탁을 유지하고, 우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을 수 있는 것(비위가 약해져서)으로 식탁을 이어갔다.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수여서 우물가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구원인 세상에서 사마리아 여성은 다시는 우물가에 오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을 잇는 우물의 물을 먹는 일이 곤혹스럽고 귀찮은 일이었다. 예수는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영적인 갈증을 가진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생수의 식탁을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열어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 주셨다.

먹지 못해 굶주리며 빈 우물가에 선 동생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식탁을 열어 주셨다. 평소에는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지 않았던 동생이 투병하면서는 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게 된 일은 기적 같았다. 항암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밥은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여러 채소와 과일로 식탁을 이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야채와 과일은 예수가 주는 생수와 같았다.

동생은 여러 친구와 지인들에게 암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곤고한 암 환자의 집에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식탁을 열어 같이 먹고 마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생의 집에서 펼쳐진 식탁은 예수가 주인 되셔서 동생을 들어 떼어 나누는 식탁이었다.

암으로 아팠지만 이제야 빈 몸으로 가벼워진 자신에게 오신 예수를 온전히 주인 삼을 수 있었다. 예수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식탁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동생에게 예수의 식탁은 온 몸과 마음이 해방된 식탁이었다. 힘이 다 빠져버린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병든 자신을 위해 기도했지만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기도가 자신에게 갇혀 움츠러들지 않아서 자유로웠고 그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한다고 했다.

우리는 열광적인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를 식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일상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살았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가 살고 싶었던 일상을 되찾는다.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오자 여인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버려뒀던 그의 공동체로 뛰어 들어간다.

메시아와의 만남은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가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었다. 한 번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헛된 삶을 살면서 자신을 가리고 숨기며 우물 공동체에도 나갈 수 없었던 수치를 예수를 통해 벗어버리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 예수를 전한다.

동생도 암의 치료와 회복이 진행되면서 공동체에서 상처 입고 깨졌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식탁을 마주하면서 죽음을 넘어 진격해 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화해의 식탁을 일굴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덧 일 년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은 재발하지는 않을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등의 두려움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암을 치료하면서 예수를 기념하며 먹었던 식탁의 기억으로 다시 힘을 얻으며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만찬이 확장된 예수의 식탁은 예수의 죽음을 넘어선다. 부활하신 예수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 부활의 주님이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다.

예수를 기념하면서 그 기념이 일상을 만들어 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C. 리미널리티(liminality)[116] 공간에서 예수의 식탁 : 광야의 예수를 중심으로(마 3:13-4:6)

성만찬이 확장된 예수의 식탁은 장례를 예식으로 집행하는 공동체에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장례는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

[116] 반 제넵의 통과의례의 과정 중에서 중간 단계인 전환(전이, transition)은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불확정하며 사회적, 문화적인 지위와 속성이 없는 상태로 사회적인 중간상태(social limbo)를 통과하는 문간방(limen)의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전의 삶에서 죽어서 새로운 지위나 삶으로 태어나고 자라기도 하며 죽어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여러 차이점을 희미하게 하기도하고 소실시키기도 한다. 빅터터너, 『빅터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 이기우 역 (서울: 민속원, 2014), 43. 46.

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진 통과의례(rite de passage)[117]이다.

본 논문은 장례를 논하지만 장례식의 일정이나 의례를 논하지는 않는다. 장례 공간에서 통과의례의 과정 중에 있는 유족들과 공동체에 집중하고자 한다. 장례식 안에서 예수의 식탁이 왜 필요한지 논의해 볼 것이다.

장례 예식은 유족뿐 만 아니라 고인이 속했던 공동체도 현실의 공간을 잠시 떠나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된다.[118] 장례의 직접 집행자인 유족들은 모든 일상을 정지시켜 놓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세상에서 입던 옷을 벗어놓고 장례에 합당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고인과 함께 세상과 분리되는 수순을 밟는다.

반 제넵이 말한 분리(séparation)의 순간이 유족들에게는 세상에서 살던 사회인의 일상을 정지시키면서 일어난다.

장례식장 안에서 통용되는 신분과 질서와 언어와 식탁으로 단순화되면서 장례 집행자로 전환(transiton)된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의 전환은 사회적 직위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어서 장례 집행자로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상태이다.

장례식장은 장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만 머무르면서 지나가는 문간방과 같은 공간이다. 이 곳에서만 유지되는 질서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질서와 모호하고 애매하게 혼재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

[117] 인간의 생애 주기는 같은 질서로 연속된 단계를 거치는데, 출생, 성인, 결혼, 장례 등의 중요하고 특별한 지점들이 있다. 이를 반 제넵은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통과(passage)하는 순서라고 하면서 의례화했는데 분리의례(rite de séparation), 전환의례(rite de marge), 가입의례(rite de agrégation)라고 한다. 아놀드 반 제넵, 『통과의례』 김성민 역 (서울: 달을 긷는 우물, 2021), 16. 24.

[118] 본 논문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특별한 공간을 장례식장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장례를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관계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의 사회적 위치와 개인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오직 장례를 위한 장례 공동체를 이룬다.

빅터터너는 이러한 공동체를 커뮤니타스(commuitas)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반구조적(anti-structure)인 상태를 형성한다고 한다.[119]

장례 공동체 커뮤니타스(commuitas)는 강제적이거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고인이 되어 공동체를 떠나는 고인을 기리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기 위한 집단이다.

그러므로 어떤 확고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계급을 형성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해체를 앞 둔 커뮤니타스가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은 서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한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한다.

장례가 치러지는 현장의 유족들은 문간방에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죽음이 주는 고되고 슬픈 광야 길을 지나야 한다. 공식적으로 장례가 끝나면 유족들은 험한 광야 길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변해버린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

[119] 터너, 『빅터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72.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광야를 경험하셨다. 인간 예수의 삶을 인생의 통과의례(rite de passage)에 비추어 살펴보면 예수의 인생만큼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통과의례(rite de passage)를 경험하신 이도 없는 것 같다.

>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 물에서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셔서 예수가 만난 것은
>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다.
> 사단은 40일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에게 돌을 주며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으며,
> 온 세상을 보여주며 세상을 줄테니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다.[120]

세례를 받으시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분리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예수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신다. 리미널리티(liminality) 공간, 광야의 시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셨다.

예수가 지나는 광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도 아닌 모호하고도 불확실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광야는 예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하시는 공간이셨으며, 우리에게는 인생이 처할 수 있는 리미널리티(liminality) 상황을 가장 이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례로 주어진다.

예수가 통과하신 광야는 예수가 신인가 사람인가를 밝히라는 사단의 시험이다. 예수의 광야 길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면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며 지나가신다.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공간에서 말씀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음을

---

[120] **마태복음 3:13-4:6**

예수는 가르쳐 주신다.

다음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주셨다. 경외의 대상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후, 공생애의 주인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광야를 통과(passage)해 나오셔서 세상으로 가입(agrégation)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율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식탁에서 음식에 대한 규제를 벗겨 주시며[121] 당신이 식탁의 음식이 되어 구원의 능력으로 임해 주셨다.[122]

장례식은 예수가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신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 위로, 입관, 발인의 순서마다 말씀이 주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장례식 내내 계속된다.

그러나 3일의 장례는 장례 집행자들이 고인을 위해 보낸 나날의 연속이라고 봐야 한다.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고인의 시신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 집중해 있다.

장례 집행자들은 모든 의례가 끝나고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고 장례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면 떠밀리듯 장례식장을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례

---

[121] **마태복음** 15:11-20

[122] **요한복음** 6:54

유니폼을 벗고 그동안 벗어두었던 사회인의 옷을 입고 사회체제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간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결핍을 가진 채로 일상으로 가입(agrégation)해야 한다.

예수처럼 말씀과 함께 광야를 나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족들이 슬픈 마음은 광야에서 나오지 못한 채로 몸만 내쫓긴 형상이다.

알렌 울펠트는 이러한 상태를 삶과 죽음의 사이에 리미널리티(liminality) 상태라고 한다. 마음의 애도가 끝나지 않은 채로 장례식은 끝이 나고, 사람마다 애도의 시간이 완연히 다른데, 상실의 모호성 아래 애도자는 삶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시간에 놓인 것이라고 한다.[123]

연구자가 만난 청년 중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청년이 있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것이 20년이나 지났고 성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를 잊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교회 공동체 포함)은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진다’, ‘일상을 바쁘게 살라’ 는 말 등을 끊임없이 해줬다. 말뿐 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담을 권하기도 했고 상담사를 직접 보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긴 세월 동안 마음이 열리지도 변화도 없었다고 한다. 많은 위로자들은 부모의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청년에게 지쳐서 그의 곁을 떠나갔고, 스스로는 사회의 부적응자요 실패자로 느껴져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

[123] 알렌 울펠트, 『애도의 여정에 동반하기』 윤득형 역 (서울: Kmc, 2021), 28-29. 40.

알렌 울펠트가 세상은 애도 기간이 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사회라고 했던 것처럼, 애도가 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들 판단받는다. 그래서 애도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했다고 자신을 속여야만 사회에서 살 수 있다.[124]

청년의 때 갑자기 혼자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위로하는 어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그 때, 만약 애도의 시간을 교회와 주변이 인정하고 허락하면서 애도자에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급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성인으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애도자에게 광야의 여정이 단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가중한 책임을 갖지 않고 리미널한 공간(안정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동반자로, 책임지려고 애쓰지 않는 증인으로서만 함께 하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다면,[125] 애도자는 부모의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회의 부적응자로 인식하며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식탁에 앉으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당신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과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부활 사이에 식탁을 놓으셨다.

예수는 제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눴으며 그 후에 예수는 십자가의 사명을 거행하시며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

[124] Ibid., 39.

[125] Ibid., 77.

실제로 보고 나서도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에만 멈춰진 채로 애도의 연장선에 있었다.

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기도 하며 여전히 애도의 광야 길에 멈춰 있었다.

제자들이 광야 길에서 나간 것은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아니다. 이들은 부활한 예수의 식탁에서 예수가 주시는 것을 먹은 후에 비로소 애도를 멈췄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애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말씀도 주어지고 애도자를 위로하는 공동체의 동반도 끝까지 함께 하겠지만 그보다 장례를 치르는 리미널리티(liminality)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의 실체를 식탁에서 경험해야 한다.

예수의 광야 길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는 시험의 실체(빵, 성전 꼭대기, 천하만국)를 보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광야 길을 지나셨던 것처럼 애도자도 죽음과 부활과 말씀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례의 절차 안에 "애도의 작업"[126]의 한 방법으로 성만찬 식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만찬 식탁은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머무르는 것이

---

[126] 죽음으로 인해 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살아있을 때 관계하던 것을 기억으로 영구히 전환하는 작업이다. 고인과의 관계를 스토리로 만들어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상실로 인한 삶의 변화와 인생이 대폭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고인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며 삶의 연속성과 관계성으로 삶을 재구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허버트 엔더슨, 에드워드 폴리, 『예배와 목회상담 힘있는 이야기, 위험한 의례』 안석모 역 (서울: 학지사, 2012), 248-249.

아니라 산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소망이 녹아 있는 말씀의 실체이다. 성만찬 식탁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야 하는 지의 표징이다.

예수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의 기억을 없애고 예수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의 장례에서 재현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부활의 실체로 성만찬 식탁에서 실현해야 한다.[127]

장례를 치르는 공간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조직과 구조를 갖추지 않은 불확실성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공간이라고 했다.

이러한 공간일지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있으니 식탁이다. 예수 이름으로 식탁을 차리며 모인 사람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식탁 앞에 앉는다.

이 식탁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탁이 아니다. 고인을 기념하는 식탁이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식탁이다. 공식적인 성만찬의 도구인 빵과 포도주의 식탁이 차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성만찬의 의미가 삭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영원한 끝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성만찬 식탁과 그 확장된 예수의 식탁이 실제로 차려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

장례식에서 “성만찬 식탁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격상해서 예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

[127] 조동호, 『성만찬 예배』 (서울: 은혜출판사, 1998), 219.

믿었다. 성만찬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성만찬을 나누었다." [128]

따라서 성만찬을 나눈 장례 공동체는 죽음으로 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고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공동체는 성만찬 식탁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삶과 죽음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29]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념과 기억의 의례인 성만찬 식탁에서 고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신의 이야기에 접목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돌보고 계시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130]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인에 대한 기억을 재조명하는 의례로써 성만찬이 장례 예식 안에 자리 잡는다면, 성만찬을 행하면서 유족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광야 길을 좀 더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만찬의 확장된 식탁이 장례식장 안에서 유족들의 일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장례식이 끝난다고 애도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광야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탁만은 남아서 동반해 줄 수 있다.

정교회와 유대교 전통에서는 장례 후에 공동체의 구체적인 돌봄이 있다고 한다.

---

[128] 김형락, "의례적 기능과 목회적 돌봄의 관점으로 보는 기독교 장례예식의 구성," 『신학과 실천』 61 (2018), 137.

[129] 안선희, "한국기독교 장례예식 갱신의 방향성," 『신학과 실천』 36 (2013), 153.

[130] 엔더슨, 『예배와 목회상담 힘있는 이야기, 위험한 의례』, 257.

“시바(shivah) 식사 라고 불리는데, 문자적으로 위로와 회복의 식사를 말한다. 고인이 없는 삶을 시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공동체가 식탁을 차려서 제공해 주는 식사이다.” [131]

애도자가 자신을 위한 식탁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인지한 공동체의 배려이다. 애도의 시간을 인정하고 위로하면서 펼쳐지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공동체의 동행이 따르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애도 공동체가 애도자를 돌보는 방법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다. 애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안정된 공동체로 있어 주는 것이다

연구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배고픔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누군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았으며, 아버지의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 보는 등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배가 고팠고 그런 배고픔에 화가 났다. 밥을 먹겠다고 식탁을 차릴 수도, 무작정 굶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군가가 ‘시바(shivah) 식사’처럼 권해줘야 먹을 수 있었다. 오래된 이웃과 공동체 식구들이 그들의 식탁에 초대해 준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

[131] Lonnie Yder, “The Funneral Meal: A Significant Funerary Ritual,”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5, (1986), 154. **박종환, “그레코로만 장례에 나타난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와 고대 기독교 성찬의 상관관계,” 『장신논단』 52 (2020), 43. 에서 재인용**

식탁의 초대가 슬픔으로 무너진 애도자를 세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했던 기억을 공유하면서 고인이 된 나의 아버지를 물어봐 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실컷 하게 해주었다.

애도의 시간 동안 혼자서 차려 먹는 식탁을 피해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자가 없으면 타 교회가 제공하는 점심 식탁을 찾아갔다.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예수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장례식은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하는 시공간이다. 죽음이 삶을 무게 있게 눌러서 모두가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고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곳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구원을 확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실제로 보이고 함께 하는 의례가 필요하다. 장례예식의 한 가운데에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성만찬 식탁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의례화하는 식탁이 필요하다.

〈부록〉 애도의 식탁

연구자는 장례식장을 리미널리티(liminality)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간에서 유족들은 리미널리티(liminality) 상황을 맞닥뜨려 자신의 감정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장례의 직접 집행자로서 장례 예식에 함몰돼 있다. 그러므로 애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례가 필요하다.

애도를 의례화하려고 하면 의례(ritual)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의례(ritual)의 전통적인 생각은 반복성과 규칙성이 의례를 만든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당면했을 때 대담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양식의 의례는 꼭 필요하다.[132]

장례 예식은 첫째 날은 빈소를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위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는 입관과 더불어 입관 예배, 마지막 날에는 발인 예배를 끝으로 장례식장의 의례는 끝이 난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유족들은 슬픔을 참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유족이 고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곳이 장례식장 안에 보이지 않는다. 상실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가니 애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인의 시신 처리 과정에만 치우쳐 있는 장례문화에서 유족들이 슬퍼할 공간과 시간을 애써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애도의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애도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슬픔의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입관이 이루어질 때 애도 의례를 문지방 의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애도 의례는 장례를 진행하는 목사가 장례 공동체에게 공개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장례)에는 장례 진행자인 목사의 마음에 의례를 넣어두고 애도 의례를 유도해야 한다. 애도 의례의 구성은 가족만이 모이는 입관식에서 유족들만으로 구성한다.

첫째 입관식에서 조문객을 잠시 물리치고 유족들과 고인이 마주하는 시간을 가진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유족들에게 허락해야 한다.

---

[132] 엔더슨, 『예배와 목회상담 힘있는 이야기, 위험한 의례』, 275-279.

둘째는 유족들이 고인에게 할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 늦기 전에 후회로 남을 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엽서 형식으로 편지지를 준비해서 입관식이 끝난 밤에도 편지를 쓰도록 권하면 좋겠다. 매장이나 화장 때에 편지를 넣어주는 형식이면 위로가 될 것이다.(장례 현장에서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고인을 추모하며 할 말을 하거나 글로 쓸 수 있도록 권한다.)

셋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유족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남은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입관 예배를 성만찬으로 행한다. 설교로 점철되는 장례 예식에서 입관 예배는 공동체가 성만찬 식탁에 참여해서 죽음과 삶이 함께 하는 기념 식탁을 가진다.

성만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동체의 구원의 식사임을 생각할 때 입관으로 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유족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장례 커뮤니타스(commuitas)와 함께 예수의 죽음 너머 부활로 이어지는 성만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선취하는 것이다.

(상황이 성만찬 식탁으로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식은 제외하더라도 식 자체는 성만찬예배로 행할 것을 제안한다)

Ⅴ. 결론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거나 교인이 교인답지 않을 때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한다. 교회가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기를 바란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세상과의 구별은 오래 전부터 교회 스스로 바라던 바였다.

그런데 교회는 이 모든 바램과 상반되게 세상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편리하게 예배를 구성하고 미디어를 배치하면서 초호화 빌딩 교회를 형성하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교회는 온 힘을 다 해 세상을 따라 가면서 구별을 버렸다.

시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에 비해 웬일인지 교회는 비어 가고, 성실하게 출석하는 교인 중에는 교회 안에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교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조사에 따르며 2012년 개신교인 22.5%, 2022년 15.0% 하락했고 앞으로 2032년에는 10.2%로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133]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추구하고 있음에도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10명 중 46%가 ‘외로운 크리스천’ 이라고 답했다.[134]

---

[133]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지용근 외 10명, 『한국교회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14. 에서재인용

[134] Ibid., 67.

이런 와중에도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며 신앙을 돈독히 하는 사람들은 증가했다. 서리집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17년 21.0% 대비 2023년에 42.6% 로 2배 가까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는데 개인 신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135]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교회는 보이는 건물과 교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인과 여론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닮아갈 수록 교인의 수적 감소는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교인의 상당수는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않다면 과감히 교회를 나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 온 것을 실천해야 한다. 높은 건물과 프로그램의 변혁을 위해 힘쓰기 보다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 올바른 예배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고, 공동체는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는 식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만찬 식탁과 말씀으로 균형 잡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준비이기도 하다.[136]

예배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그리스도인의 표리부동함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도 말씀과 식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교회를 떠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명심하고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든

---

[135] Ibid., 36-37.

[136] 장자끄 폰 알멘, 『구원의 축제 :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10), 187.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안팎으로 교회를 향한 눈초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배는 공동체를 토대로 하고 공동체는 예배를 위해 모인 개인이 그 구성을 이룬다.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지 공동체가 개인을 만들어 가는 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의 식탁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셨지만 소외된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도 빼놓지 않으셨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제외된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셔서 예수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로 들어온 모임만을 공동체라고 단정하기에는 예수가 말씀하신 공동체에 한참 미흡하다. 교회를 나가 표류하는 사람들, 혼자서 예수의 식탁에 앉은 사람, 병실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예수가 정의하신 예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예수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공동체를 정의하고, 예수 가족 공동체는 예수를 주인 삼은 식탁에서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

공동체가 예수의 식탁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식탁을 차릴 것인데, 자칫 식탁이 사유화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자는 의도이다.

어떤 이유로도 식탁은 예수가 주인이신 식탁이어야 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성만찬 식탁이 확장되고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실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성만찬 식탁을 확장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의 식탁을 재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식탁의 재현은 중요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성만찬이 확장된 부활의 식탁으로서 예수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을 음식으로 식탁에서 내주시고 떼어 나눠 주신 예수의 식탁을 증인으로서 재현해야 한다. 셋째로 식탁에 앉는 모두가 예수께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식탁을 차리고 떠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만찬의 확장으로 예수의 식탁을 재현하면서 예수 가족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꿔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박경미.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14.

안선희. 『예배 돋보기』. 서울: 바이북스, 2011.

조동호. 『성만찬 예배』. 서울: 은혜출판사, 1998.

조병호. 『예수님의 성찬식 선언 3가지 - 관유에서 보혈로』.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4.

지용근 외 10명. 『한국교회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희년예배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4.

2. 외국서적

Dom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New York: Contium, 2005.

3. 번역서적

댄 E. 샐리어스/이필은 옮김. 『예배와 영성』. 서울: 은성, 2002.

레너드 스윗/장택수 옮김.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05.

로렌스홀스투/김순환 옮김.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로완 윌리암스/김기철 옮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서울: 복 있는 사람, 2022.

브루스 J. 말리나/심상법 옮김. 『신약의 세계 : 문화 인류학적인 통찰』. 서울: 솔로몬 2004.

빅터터너/김익두, 이기우 옮김. 『빅터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서울: 민속원, 2014.

아놀드 반 제넵/김성민옮김. 『통과의례』. 서울: 달을 긷는 우물, 2021.

알렌 울펠트/윤득형 옮김. 『애도의 여정에 동반하기』. 서울: Kmc, 2021.

앨버트 벨/오광만 옮김.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에드워드 폴리/최승근 옮김.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요셉 봐이스마이어, 빌헬름 게이를링스, 기스베르트 그레사케/전헌호 옮김.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2.

유진 피터슨/권연경 옮김. 『일상-부활을 살다』.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장자끄 폰 알멘/박근원 옮김. 『구원의 축제 :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10.

쇠얀 키르케고르/윤덕영, 이창우 옮김. 『성찬의 위로』. 세종시: 카리스 아카데미, 2023.

J. 막 힉스/정남수 옮김. 『주의 식탁으로 초대』. 서울: 그리스도대학교출판국, 2004.

존 도미닉 크로산/김준우 옮김. 『역사적 예수』.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존 칼빈/ 문병호 옮김.『기독교 강요 4』.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테레사 베르거/안선희 옮김.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캐롤 A. 뉴섬 · 샤론 H. 린지/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한국장로교출판사/김소영, 김세광, 안창섭 옮김. 『공동예배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허버트 엔더슨, 에드워드 폴리/안석모 옮김. 『예배와 목회상담 힘있는 이야기, 위험한 의례』. 서울: 학지사, 2012.

4. 학술논문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91 (2017), 160-166.

김재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대한 개성화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사상 187 (2019), 20-21.

김형락, “의례적 기능과 목회적 돌봄의 관점으로 보는 기독교 장례예식의 구성.” 신학과 실천 61 (2018), 123.

박종환, “그레코로만 장례에 나타난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와 고대 기독교 성찬의 상관관계.” 장신논단 52 (2020), 43.

안선희, “한국기독교 장례예식 갱신의 방향성.” 신학과 실천 36 (2013), 153.

이어진,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연구-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식사로.” 신학과 실천 46 (2015), 89.

장계은, “바울의 공간의 윤리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143-144.

Lonnie Yder. “The Funneral Meal: A Significant Funerary Ritual.”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986), 25.

5. 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성경 앱 사용자 늘고 있지만 종이 성경 대체 못해.” (2023).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724/1474472 [2024년 9월 26일 최종접속].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 정재영 (2023).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23/02/PPT.pdf [2024.11.01. 최종접속]

DAILY GOOD NEWS. “장로교 성찬 실태, 연 2-4회에 그쳐, 더 늘릴 필요있다.” 한연희 (201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7 [2025.1. 8. 최종접속]

아이굿뉴스. “예배에서의 성찬보급강화 시급.” 공종은 (2003)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 [2025. 1. 17. 최종접속]

https://namu.wiki/기념. [2025. 1. 20. 최종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Chengyi Chang

Place and Date of Birth: Jeongeup, Republic of Korea, Aug 31, 1966

Parent`s Names: Banghyun Oh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Jeongeup High School 56-11 Chungjeong-ro, Jeongeup-si, Republic of Korea		Feb 8, 1984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27, 1989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 M	Feb 23, 2015
Hashin University 159 Insubong-ro,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6, 201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Chengyi Chang

Jan 12, 2025